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8

호세아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호세 아

Hosea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
리시리라 (10:12)

זָרְעוּ לָכֶם לְצִדְקָה קָצְרוּ לְפִי־חֶסֶד
נִירוּ לָכֶם נֵיר וְעַתָּה לְדַרוֹשׁ אֶת־יְהוָה
עַד־יָבֹא יְיָהּ צֶדֶק לָכֶם:

호세아 차례

호세아 서론	〈11제〉	121
제 1 장 호세아의 가정과 음부인 아내	〈15제〉	124
제 2 장 하나님의 징계와 은총의 회복	〈29제〉	128
제 3 장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 7 제〉	136
제 4 장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22제〉	139
제 5 장 에브라임의 교만	〈22제〉	145
제 6 장 여호와를 알자	〈14제〉	151
제 7 장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	〈29제〉	156
제 8 장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	〈15제〉	164
제 9 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6제〉	170
제 10 장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22제〉	176
제 11 장 남은 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15제〉	184
제 12 장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책망	〈16제〉	190
제 13 장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15제〉	197
제 14 장 회개와 축복에 대한 권면	〈14제〉	203

호세아 특별 자료 차례

호세아 서론 〈지도 자료〉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지계(地界) ..	123
제 1 장 〈본장의 요절〉	127
제 2 장 〈화보 자료〉 부부 상(夫婦像)	135
제 3 장 〈화보 자료〉 값 주고 고멜을 다시 사는 호세아	138
제 6 장 〈연구 자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仁愛)	155
제 7 장 〈본장의 요절〉	163
제 8 장 〈화보 자료〉 무너진 송아지 제단	169
제 9 장 〈본장의 요절〉	175
제 10 장 〈본장의 요절〉	183
제 11 장 〈본장의 요절〉	189
제 12 장 〈화보 자료〉 천사와 겨루는 야곱	196
제 13 장 〈연구 자료〉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202
제 14 장 〈화보 자료〉 백합화(lily)	207
제 14 장 〈연구 자료〉 말[馬]과 관계된 성경적 교훈과 상징	208

호세아 서론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자가 호세아라는 데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 (2) 왜냐하면 본서의 저자가 서두(序頭)에서 본서의 내용이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 1, 2, 4).
- (3) 또한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세아를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3: 1).
- (4)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를 호세아라고 단정할 수 있다.

2.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에 따라서 본서의 명칭을 ‘호세아’서(書)로 명명하였다.
- (2) 그런데 70인역(LXX)에서는 본서를 〈오세에〉라고 칭하였으며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오세〉라고 칭하였다.
- (3) 그러나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루터(M. Luther, 1483- 1546)는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에 따라 본서를 다시 ‘호세아’(Hosea)라 칭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 (4) 결국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명칭이다.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B. C. 782- 753)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다(1: 1).
- (2)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웃시야 왕 시대(B. C. 790- 739)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B. C. 728- 725-697)까지 예언 활동을 하였으므로(1: 1) 그의 활동 연대는 B. C. 790-697년 사이로 볼 수 있다.
- (3)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면서도(8: 1-7; 10: 5-8 등)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사건(B. C. 722)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본서는 B. C. 72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 그러므로 본서가 기록된 연대는 B. C. 790-722년 사이로 볼 수 있다.

4. ㉣ 본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내용은 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B. C. 793-782-753)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4: 7) 영적으로는 빈곤의 시대로서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좇아 행하기를(4: 11) 서슴지 않았던 패역한 시대였다.
- (3)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심령으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8: 7)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다.
- (4) 그러나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B. C. 722)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왕하 17: 6).

5. ㉤ 호세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 ㉠ (1) 호세아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북방 이스라엘 출신인 ‘브에리’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 (2)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였는데(1:2, 3) 후에 간음(姦淫)하여 정부(情夫)의 품에 있는 간부(姦婦)인 그의 아내를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야 하는 고통을 당하였다(3:1-3).
- (3) 또한 '구원', '인도' 등의 뜻을 지닌 '호세아'라는 이름이 말해 주듯이 그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열렬한 애국자였고 또 다정 다감(多情多感)한 인도주의자(人道主義者)로서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그의 예언을 통해 모든 사람들 위에 밝게 빛났다.
- (4) 한편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더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본명이 호세아였으며(민 13:16; 신 32:44)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였다(왕하 15:30).

6. ㉠ 본서의 수사법상(修辭法上)의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수사법적 특징은 고멜과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은유법적(隱喩法的) 표현이 본서 전체를 통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 (2) 그런데 본서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로서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본서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본서를 기록했다는 증거가 된다.
- (3) 이처럼 본서에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일지라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여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7. ㉠ 본서의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서에서는 고멜의 음란한 행동을 호세아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2) 또한 호세아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이 철저히 타락하였을지라도 영원히 버려 두시지 않고 회개케 하도록 끝까지 노력하신다는 것이 본서의 주제이다.

8. ㉠ 본서에서 강조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서에서는 간음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 즉 본서는 과격하며 무서운 경고로써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신랄하게 통박(痛駁)하고 있다(5:10).
- (2)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꾸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방임하기 때문이다(참조, 히12:7-9).
- (3)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를 연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얽매인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9. ㉠ 본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방법을 설명하라.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 풍요와 욕심으로 인하여 여러 신(神)들을 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을 본서에서 경고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엄하게 심판하셨던(신 21:18; 24:1) 것과는 달리 본서에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인내하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인내로 견디시면서 계속

적인 경고와 축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다.

10.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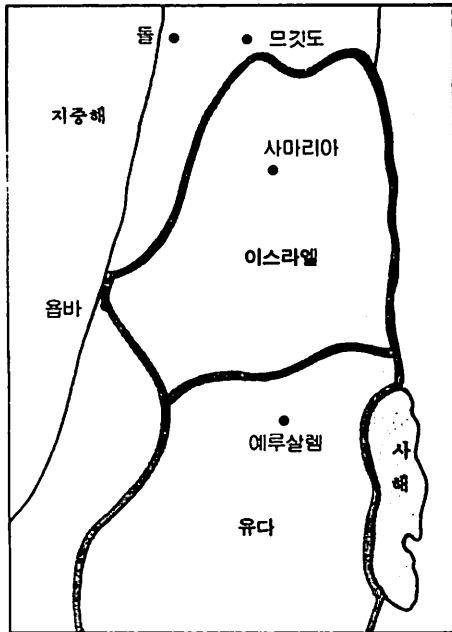
- ㉠** (1)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1:1-3:5
 - ① 불성실한 여인/1:1-11
 - ② 그녀를 향한 징벌/2:1-13
 - ③ 그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2:14-23
 - ④ 그녀를 위한 구속/3:1-5
- (2) 이스라엘의 교만, 부도덕, 우상 숭배를 고발하다/4:1-14:9
 - ① 심판의 메시지/4:1-10:15
 - ② 회복의 메시지/11:1-14:9

11.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목은 땅을 기경(起耕)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라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10:12).

지도자료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과 유다 지계(地界)



호세아 사역 초기의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Jeroboam II, B. C. 793-753)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켜 그 지계가 멀리 하맛(Hamath) 어귀에까지 이르렀으나(왕하 14:23-28) 사후(死後) 그를 계승한 여러 왕들의 거둬진 실정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말았다.

제 1 장 호세아의 가정과 음부인 아내

단락구분 : 1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 2-3 호세아가 음부(淫婦)인 고멜을 취해 자녀를 낳다 / 4-9 호세아의 음란한 자식들 / 10-11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

1 웃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3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값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낳은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이 사건은 호세아의 음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표시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악된 길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히12:5-10).

2. ㉠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귀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1) 이 귀절은 호세아에게 임한 모든 말씀이 인간의 추측이거나, 생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확인(確言)해 준다.

(2) 즉 이것은 호세아가 본서 전체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경고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모든 백성들이 호세아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하며 그 말에 순종해야 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호세아의 경고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더욱 악한 것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3. ㉠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2절)

- A** (1)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참조, **Q** 4)을 낳으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에서 ‘음란한 아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셋트 제누님>은 ‘직업적인 창기’를 가리키는 말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기질이 다분한 여인을 가리킨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은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신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
- 4. Q** ‘음란한 자식’이란 어떤 자녀를 가리키는가? (2절)
- A** (1) ‘음란한 자식’이란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얻은 자녀를 가리킨다.
- (2) 즉 ‘음란한 자식’은 타락과 음행(淫行)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한 파멸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다.
- (3) 이처럼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하여 음행을 범하게 되면 음란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 5. Q**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A** (1) 여기서 ‘여호와를 떠나’라는 말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떠나’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특정된 소수의 사람들만의 행위가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감염된 범죄 행위였다.
- (3)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출 19:1-8)을 깨뜨리는, 즉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행위였다.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거짓 교훈을 멀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를 받고 우리 생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로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일 2:5, 6).
- 6. Q**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3절)
- A** (1)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아내, 즉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 (2)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였다.
- 7. Q** 고멜이 잉태하여 얻은 첫번째의 자녀는 누구인가? (4절)
- A** (1) 고멜이 낳은 첫아들은 ‘이스라엘’이다.
- (2)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흠으신다’라는 뜻과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흠으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셨고(4절), 또한 그들에 대한 언약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11절).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 8. Q** ‘예후의 집’의 배경을 설명하라(4절).
- A** (1) 예후(B. C. 841-814)는 본래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다(왕하 9:2).
- (2) 그런데 예후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왕하 9:6)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이스라엘에서 살해한 후(왕하 9:24)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다. 그 후 그의 자손들은 그를 이어서 5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
- (3)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예후의 집’은 왕가(王家)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게 되었다.

- (4) 그러나 예후 왕가의 3대 왕인 요아스(B. C. 798-782)와 4대 왕인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3)의 통치 때에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예후의 집'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게 되었다.
- (5)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던 예후의 집안은 결국 호세아의 예언대로 스가라가 왕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멸망당했다(왕하 15: 10).

9. **㉠**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는 귀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 귀절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예후의 왕가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 (2) 즉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켰고 아합가와 동맹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멸망시켰다(왕하 9:14-10:27).
- (3)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죄에 대한 혐오감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와 개인적인 적대심을 목적으로 행하였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 그는 계속적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왕하 10:29, 31).
- (4) 뿐만 아니라 그를 이어 왕이된 그의 후손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예후의 집에 피를 갚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왕가를 멸망시킬 것을 가리킨다.
- (5) 또한 이 말은 '예후의 집'이 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후 왕가와 함께 결국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을 의미한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다.

10. **㉠** '이스라엘의 활'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5절)

- ㉡** (1) '이스라엘의 활'이란 이스라엘 왕국의 힘과 그 힘을 과시하는 군사력을 상징한다.
- (2) 이스라엘은 요아스(B. C. 798-782)와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3)에 이르러 부의 축적으로 인해 많은 병기와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 (3)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져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선포하셨다(5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군사력이 헛되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참조, 시 127:1).

11. **㉠**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6절)

- ㉡** (1)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이다.
- (2) '로루하마'란 '절대...이 아니다'란 뜻의 <로>라는 단어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시 103:13)이란 뜻의 <루하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 (3) 그러므로 그 이름은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결국 그 이름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이름으로서 징계를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더욱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

12. **㉠**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딸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
- (2) 왜냐하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온갖 행악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 (4) 그러므로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을 배반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시 9:16).

13. **Q**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가? (7절)

- A**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
 (2) 이와 같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의미한다.
 (3)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은 첫째, B. C. 701년 앓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앓수르 군대를 멸망시키심으로 유다를 구한 사건(대하 32:21)과 둘째,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B. C. 586년에 멸망한 후 B. C. 538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대하 36:22, 23)을 가리킨다.

14. **Q**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다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8,9절)

- A** (1)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부르게 하셨다.
 (2) 여기서 '로암미'란 '결코...이 아니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로>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을 지닌 <암미>의 합성어로서 '너희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란 뜻이다.
 (3) 그러므로 고멜의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출 19:1-8)이라는 언약을 파기하신 것을 뜻한다.
 (4)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최후를 향한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15. **Q**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0,11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2) 한편 '이스라엘'이란 말은 본래 저주를 나타내는 말이었다(4절).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축복을 선포하는 말이 되었다(참조, Q7).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눅 15:11-24)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신다.

본장의 요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였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

제 2 장 하나님의 징계와 은총의 회복

단락구분 1-7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 8-13 파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 14-15 풍요로운 축복의 회복 / 16-20 언약의 갱신 / 21-23 축복하시겠다는 약속

1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 너희 어머니와 갱론하고 갱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해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해 하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5 저희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던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어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9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사람이 없으리라

11 내가 그 모든 회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2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절해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13 저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컫음이 없게 하리라

18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옹하리라 나는 하늘에 옹하고 하늘은 땅에 옹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옹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옹하리라

23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시고 그 대해 죄악에 징계하신 후 다시 언약을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려 징계하시며 사랑으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준다.
- (3) 오늘날 일부 교육계(J. J. Rousseau, J. H. Neil)에서는 자유 방임적인 교육 방법을 고수하며 이를 교육 일선에서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사랑어린 채찍에서 나타나며 꽃필 수 있음을 잊지 말자(참조, 잠 23:13, 14; 29:15).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이름이었던 ‘로암미’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암미’와 ‘루하마’라고 고쳐서 부르게 하셨다(참조, 1장 ㉠ 11, 14).
- (2) 여기서 ‘암미’란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며 ‘루하마’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 ‘공활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미래적 소망을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3. ㉠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그 어미 고멜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명하였는가? (2절)

- ㉠ (1) 호세아는 그 어미 고멜에 대해서 ‘쟁론하고 쟁론하라’고 명령하였다.
- (2) 여기서 ‘쟁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리브>로서 ‘소리내어 다투다’, ‘설득하다’,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 (3) 이것은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버린 것이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하는 자녀들에게 그가 원했기 때문에 고멜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음행을 좇아 도망갔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그 아내 고멜에게 있음을 항변하는 것이다.
- (4)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음란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을, 슬픔을 당하는 남편 호세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경건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 중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부패를 쳐서 증거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못하는 나태한 성도들에게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신다.

4. ㉠ 호세아는 아내 고멜에게 얼굴과 유방 사이에서 무엇을 제하라고 하였는가? (2절)

- ㉠ (1) 호세아는 고멜의 얼굴과 유방 사이에서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과 유방 사이에는 음란한 표정과 행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음란 행위인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그 나던 날’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한 그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로 광야에서 모든 것이 결핍되어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와 같이 다시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위협적인 하나님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시는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이 담긴 말씀인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악 속에 사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다.

6. ㉠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겠다고 말한 대상은 누구인가? (5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하였다.
 (2) 여기서 '연애하는 자'란 바알과 다른 가나안 신들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할 것을 지적하는 말로서 그 어미 '고멜'이 자신의 정부(情夫)를 쫓아간 행위로 비유되었다.

7. ㉠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생각하였는가? (5절)

- ㉠ (1) 그들은 '저희가 내 떡과 내 꿀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였다.
 (2) 즉 그들은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3)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특산물로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신 7:13; 11:14; 12:17)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서 떠났음을 나타낸다.
 (4)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였다.

8. ㉠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계속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키게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 여기서 '가시'와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들 사이를 찢고 분리케 하는 방해물을 가리킨다.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과 더불어 음행을 계속할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의 상황으로 옮겨 놓으실 것임으로 당신께 돌아오는 방법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행하는 행위의 동기나 목표가 당신의 뜻에 어그러졌을 때 그 길을 막으시며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하신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 성도는 빨리 행하는 길에서 돌이킴이 필요하다(참조, 민 22:31-35).

9. ㉠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심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인가? (7절)

- ㉠ (1) 그들은 그 연애하는 자 곧 우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우상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2) 즉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될 것을 가리킨다.
 (3) 그 결과 그들은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과 더불어 번영과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실 때 참위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렘 15:16).

10.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들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8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
 (2)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알에게 감사했으며 은과 금으로 바알을 꾸미는 데 사용하였다(사 30:22; 40:19; 렘 10:4).
 (3)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 그들이 죄와 무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에 대한 책임을 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4)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그들의 축복자로 오해하고 섬겼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만과 교만히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약 2:20).

11. **Q** ‘그 시절’과 ‘그 시기’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9절)

- A** (1) ‘그 시절’과 ‘그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절, 즉 추수하는 시기를 가리킨다.
 (2) 이와 같은 추수기는 봄에 땅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철을 따라 가라지를 열심히 뽑으면서 정성을 다한 자들에게는 기쁨과 보람의 때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의 때가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의 때로 변할 것을 선언하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추수할 것이 없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포도주 등 모든 소산물이 당신의 선물인 줄 깨닫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신다.

12. **Q**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라는 귀절에서 ‘내 곡식’이란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A** (1) 이 말은 모든 곡식과 땅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2) 그 이유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해 주신(창 1:1; 2:28)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참조, 전 5:19).

13. **Q** ‘빼앗으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9절)

- A** (1) 이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는 뜻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선물들을 박탈하시겠다는 것이다.
 (3)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아부하고 섬기는 바알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빼앗아 가실 것이다(참조, 잠 23:5; 약 5:3).

14.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절)

- A** (1) 하나님께서는 모든 회락과 절기와 월삭(月朔)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실 것이다.
 (2)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든 기쁨의 절기와 명절이 애痛的 명절로 변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암 8:10).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이며 굶주림과 기갈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고자 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 슬픔과 고뇌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15. **Q**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12절)

- (A) (1) 그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연애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준 값이라고 생각하였다.
- (2) 여기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가나안 땅의 가장 훌륭한 산물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신 가장 풍성한 산물의 대표로 언급되었다(참조, 욕 2:22).
- (3)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그들이 바알을 열 심히 숭배하므로 바알이 그 대가로 내려 준 것이라고 믿었다.
- (4)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거두어 가신 후에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참조, 8-13절).

1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값이라고 믿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2절)

- (A) (1)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심으로 비참한 궁핍을 당하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
- (3) 그들이 이처럼 궁핍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들의 물질적인 번영이 바알을 숭배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바알이 그들을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구해 줄 수 없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심과 동시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위함이었다.
- (5)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물질의 축복이 자기 자신의 전적인 노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부패한 성도들에게 경고하신다(참조, 전 5:19).

1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긴 시일에 따라 벌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3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에 따라 징계하신다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락의 날을 슬픔의 날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범죄한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하신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죄가 채워졌을 때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겔 18:31).

18. **㉠**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실 것인가? (14절)

- (A) (1)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개유(開諭)하셔서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나가실 것이다.
- (2) 여기서 ‘개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설득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타이를 것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이 광야로 끌려가기 전에는,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이 박탈될 때까지는 그들의 악행이 줄어들거나 종식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듯이(신 8:2-6)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심으로 겸손하게 만드시고 궁핍과 어려움을 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시며 당신이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는 동일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패한 백성을 징계하심은 그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히 12:5-13).

19. **㉠** ‘말로 위로하고’라는 귀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개역 성경에서 ‘말로 위로하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디바르티 알리바>는 ‘저들의 마음에 말하다’라는 뜻이다.
- (2) 여기에서 ‘마음에 말하다’는 것은 친절한 말로 위로하고 슬픔을 달래 주며 친절을 베풀고 희망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래서 전에는 슬픔에 빠져 있던 자가 이제는 숨을 자유롭게 쉬고 용기를 내어서 더 나은 상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황하고 죄짐에 눌려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위로하여 주신다(마 11:28).
2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에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음식물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사랑으로 권고하시며(14절)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위로하셨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진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합 3:2).
2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한 곳은 어디인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아골>은 ‘환난’이란 뜻이며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한 골짜기’를 가리킨다(수 7:24-26).
- (3)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의 골짜기를 매우 비옥하고 즐거운 골짜기(사 65:10)로 바꾸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에서의 탄식이 변하여 소망을 맛보리라는 말씀이다.
- (4) 이와 같이 주안에 있는 사람에게에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문’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12:12).
22. ⓐ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15절)
- Ⓐ (1)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할 것이다.
- (2)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갓 나와 홍해를 건넌 후 기뻐 노래하여 화답한 것같이 소망의 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기쁨으로 화답할 것’이라는 말이다.
- (3) 이러한 찬미야말로 환난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개선가이다.
2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당신을 무엇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바알 숭배에 탐닉해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며 온갖 모양의 우상 숭배를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왜냐하면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지만(13절) 이제는 하나님을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분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그들이 바알이라는 그 이름이 혐오스러워서 입에 올리조차 싫어하며 듣는 것

도 역겨워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의 우상과 죄악에 혐오감을 갖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에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에 설 수 있다(살전 5:22, 23).

24. **㉠** ‘그날에는’에서 나타내는 ‘그날’은 언제인가? (18절)

- ㉠** (1) 여기에서 나타내는 ‘그날’이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 (1:11)이라고 한 그날을 가리킨다.
 (2) 즉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1:5),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1:11; 2:16, 18, 21) 날을 의미한다.
 (3) 그날은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를 상징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은 심판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참으로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개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겔 42:20).

25. **㉠**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은 들짐승과 곤충과 공중의 새들이 인간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사 11:6-9).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언약을 맺는 그날이 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사 11:8).

2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셨다.
 (2) 여기에서 ‘장가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시>인데 남자와의 성적인 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을 가리킨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처럼 그들과 결혼하시겠다는 것이다.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결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다.

2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가들 때 어떤 마음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고 하셨다.
 (2) 여기에서 ‘의와 공변됨’이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신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로 그들에게 장가들겠다는 것이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28. **㉠**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알게 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과 요구하시는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

- 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방지하시고자 함이다(신 32:5, 6)
29. **Q**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하실 것인가? (21, 22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응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량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겠다는 언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곡식이 잘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 (4) 한편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풍성한 영적 은혜를 예표한다.
- (5) 우리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연계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이다.

화보자료

부부 상(夫婦像). 그리스인의 묘비에 새겨진 아름다운 부부 상으로서 B. C. 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가 부부 사이로 묘사되어 있는 곳이 있다(계 19:7). 본장도 그중의 하나인데 부정한 아내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 남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2절). 그 아내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남편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다. '만일 네가 네 잘못을 뉘우치면 나는 다시금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19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도 자신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참조, 롬 3:25).

제 3 장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단락구분 1-3 다른 남자와 간음한 아내를 계속 사랑하다 / 4 이스라엘의 멸망 / 5 이스라엘의 회복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3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

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좃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4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5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1. ㉠ 본장의 주제를 설명하라.

㉠ (1) 본장에서는 또다시 1장에서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보여 주고 있다.

(2) 즉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장차 외국(外國)에 포로되어서 오랜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3)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그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속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낸다.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건포도 떡'이란 바알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소망에 만족을 느끼는 우상 숭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온 사건으로 비유되었다.

(4) 또한 이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지적, 도덕적, 사회적 조건 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이다(3:16).

3. ㉠ 호세아는 고멜을 얼마에 사왔는가? (2절)

㉠ (1) 그는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치르고 간음한 아내인 고멜을 정부(情夫)에게 사서 다시 데려왔다.

(2) 여기에서 '보리'한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이 된다. 당시 화폐 단위에 있어서 은 1개는 1세겔에 해당이 되었으므로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은 총 30세겔이 된다. 당시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호세아가 지불한 금액은 일

반 노동자가 12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었던 거액이었다.

- (3) 그런데 혹자에 따르면 이 금액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종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던 액수밖에 되지 못한다고 한다(출 21:32).
- (4) 고멜이 한 가정의 어엿한 아내였지만 천한 음부로 전락하여 여종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종을 사는 가격으로 그녀를 사을 수가 있었다.
- (5)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방탕할 때에는 값어치 없는 생으로 전락되어질 것을 나타내어 준다.

4. **㉠**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을 집으로 다시 데려오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권고하였는가? (3절)

- ㉠** (1) 호세아는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고 권고하였다.
- (2) 이와 같은 호세아의 권고는 음부의 짓을 버리고 돌아오는 고멜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별거를 선언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 온 음행의 길에서 180도 돌아서서 정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숙과 수양의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에게 자숙을 요구하면서 자신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며 또한 그녀와 부부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대신에 다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를 단절할 때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실 것을 상징한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과거의 죄악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돌이키도록 명령하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참조, 대하 7:14).

5. **㉠**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어떻게 지낼 것인가? (4절)

- ㉠** (1)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柱像)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 (2) 여기서 ‘주상’이란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긴 ‘돌기둥’이나 ‘나무 그루터기’(출 24:4; 34:13)를 그리고 ‘드라빔’은 집안에 모신 작은 신상(삼상 19:13-16)을 가리킨다.
- (3) 또한 ‘에봇’이란 원래 대제사장이 어깨에 두루는 옷을 가르켰지만(출 28:4) 여기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물건을 의미한다(삿 17:5).
- (4)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또한 종치부를 찢게 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날 동안’이란 B.C. 722년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있게 될 포로 시기를 가리킨다.
- (5) 하지만 이 기간이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기간인 것이다.

6. **㉠**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5절)

- ㉠** (1)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구할 것이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었던 사실을 애통해 하면서 자신들의 상실한 것을 회복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아야 하며 그와 화해하기를 원해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 (4) 한편 본절에서 ‘그 왕 다윗’이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며 다윗 자신도 주라고 부른 분이로서(시 110:1) 하나님께

서는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셨다(눅 1:32).

7. **㉠**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언제 나아간다고 하였는가? (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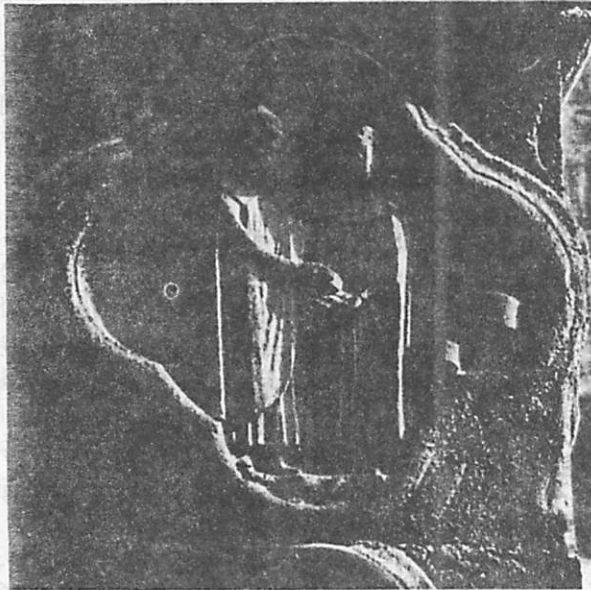
㉠ (1)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 일'에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말 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하리트 하야뫼>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때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킨다(사 2:2; 렘 23:20; 단 2:28; 미 4:1).

(3)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 일에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롬 11:25)과 또한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마 24:31; 딤후 2:10).

화보자료

값 주고 고멜을 다시 사는 호세아. 본장 2절 내용을 형상화한 이 부조(浮彫)는 아미앵 대성당의 장식 부조이다.



호세아가 방탕한 아내인 고멜(Gomer)을 값 주고 다시금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1, 2절)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고멜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것을 의미한다(3-5절).

제 4 장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

단락구분 1-5 이스라엘의 죄악 / 6-10 제사장과 선지자를 책망하시다 / 11-14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 숭배 / 15 우상 숭배에 대해 유다에 경고하다 / 16-18 이스라엘의 타락 / 19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5 너는 낮에 거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8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9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10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효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좃스기를 그쳤음이니라

11 음행과 목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12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13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14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회생을 드림이나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15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헨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16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니라

17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18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19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싣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정과 음행,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할 책임이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마저도 부패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패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한 죄의 결과로 당신께 버리움을 당하며 전국토가 황폐되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5) 우리는 본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부패할 경우 얼마나 비참한 징계가 예비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쟁변을 하셨다.

(2) 여기에서 '쟁변하셨다' 라는 말은 법적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앞서 먼저 당신의 율법과 계명에 입각하여 그들의 잘못을 따지는 것을 가리킨다(12:2; 사 1:18; 미 6:2).

(3)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수치를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 망덕하게 갚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그 입의 정죄와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다.

3. **㉠**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1) 그 땅이 슬퍼하며 그 땅에 사는 자가 다 쇠약해 죽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다 사라질 것이다.

(2) 이 말은 이스라엘 전국토가 완전히 멸망하며 황폐될 것을 가리킨다. 즉 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신 11:9)이었지만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쟁과 기근으로 황량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악한 결과 모든 자연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 그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자연까지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4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2)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임무가 있었다(대하 19:8). 따라서 여기에 '제사장과 다투는 자'란 자기의 흉한 허물을 지적하는 제사장의 유익한 충고와 판결에 불복하여 항거하는 자를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타락과 함께 아무도 그러한 죄악을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고 악하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4) 오늘날 성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삶의 본을 보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경책과 충고를 기쁜 마음으로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충고를 멸시한다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5. **㉠** '거처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1) '거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샷>인데 이 말은 '몸의 평형을 잃고 진로를 유지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이와 같은 상태는 범죄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진 결과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3)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나 교사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그 자신과 교인들을 패망하게 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패역한 영적인 지도자나 교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다(참조, 마 18:6).

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지식'이란 하나님과 그 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참조, 신 30:15).
- (4)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백성들에 대한 교훈과 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하였다(암8:11).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태만한 제사장들과 당신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대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참조, 사 5:13-17).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둘 경우 궁극적으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7. **㉠**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고 선언하셨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과 명예와 불의한 재물만을 추구하는 제사장들과(8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다(1절).
- (3)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어긴 까닭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8. **㉠** 이스라엘 자손들은 번성할수록 무엇을 하였는가? (7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범죄를 하였다.
- (2) 여기서 '번성하다'는 말은 인구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여 그 부와 권세가 점점 증가함을 뜻하는 말로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B. C. 793-753)의 통치하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상태를 가리킨다(13:1).
- (3)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물질적인 풍요나 국가적인 번영의 원인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 받은 열매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2:5, 8; 시 106:20; 렘 2:11).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고, 그들의 축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말 2:2).
- (5) 이와 같이 현세를 사는 우리들도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수록 범죄를 한다면 그 축복이 변하여 패망과 저주가 될 것이다(잠 11:28).
9. **㉠**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었는가? (8절)
- ㉠** (1)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
- (2) 본래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양식(레 6:26; 10:17)이었는데 호세아 당시 제사장들은 더 많은 속죄 제물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더욱 죄를 짓도록 유도하였다.
- (3)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가 많으면 속죄의 제사도 많아질 것이고 그와 함께 제물의 양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타락한 제사장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악용하여 많은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하였다.
- (5) 이처럼 오늘날의 목자들도 헌금을 위해서 양 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양 떼까지도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렘 23:30-40).
10. **㉠** 제사장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점점 더 타락하여 굶주린 짐승처럼 되어서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허덕이며 더 많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탐욕적으로 삼킬지라도 그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참된 위안과 평화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사56:11).

11. Ⓞ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가? (1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마음을 빼앗겼다.
- (2) 여기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은 ‘이해와 의지를 몽롱하게 하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3)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그들이 음행과 술취함이 주는 관능적 쾌락 곧 향락 생활에 빠져 자신들의 신앙과 선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였음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그들은 쾌락에 빠져 정신차리지 못하고 몽롱한 가운데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음란과 술취함의 죄는 인간을 흐리멍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력과 분별력을 마비시킨다(참조, 눅 21:34; 롬 7:5; 갈 6:8).

12. Ⓞ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를 한 것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나무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 (2) 이 나무는 백성들이 우상으로 만든 것으로 드라빔같이 짐을 치는 지팡이다(3:4).
- (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과 술취함으로 마음을 빼앗겨(참조, Ⓞ 11) 나무들을 향하여 대화(렘 2:27; 함 2:19)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과 술취함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 가지의 우상과 대화하여 숭배하기도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13.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제사와 분향을 하였는가? (13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 언덕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들이 아름다우므로 그 그늘 아래서 분향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곳에는 제단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의 땅이 우상의 종교로 오염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 (3)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극에 이르렀고 또한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은 그곳에서 간음을 행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가나안과 바벨론 우상에 있어서 젊은 처녀들이나 여인들을 제물로 바치며 행음하는 행위가 숭배의 기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에 몰두하는 자들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관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 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욕심은 우상 숭배이다(골 3:5).

14. Ⓞ 하나님께서 딸과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창기(娼妓)와 함께 나가며 음부(淫婦)와 함께 희생을 드렸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그들이 매춘 행위하는 여인들과 행음하는 여인들로 더불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모든 지각을 상실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방종의 극치를 보여 준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딸들과

며느리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도 이용하신다(잠 16:4).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서 성도들을 교훈하시기도 하신다.

15. **Q**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서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A**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북이스라엘의 성읍 길갈의 행위를 본받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
- (2) 즉 길갈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또한 그릇된 예배를 드려 백성들을 미혹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12:11; 암 4:4; 5:5).
- (3) 그러나 이 길갈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처음 요단을 건너 진지를 구축하여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새 생명과 새 출발을 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수 4:19, 20; 5:9, 10; 9:6; 10:6-9, 43) 엘리사의 선지 학교가 세워진 곳이었다(왕하 2:1; 4:38).
-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셨듯이 성도들에게 신앙 생활의 저해 요소가 되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멀리하도록 경책하신다(참조, 답후 3:1-5).

16. **Q**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에게 길갈과 더불어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성읍은 어디인가? (15절)

- A** (1) 하나님께서는 벵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서 말하는 ‘벵아웬’은 실제로 ‘벵엘’을 가리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회생 제사를 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곳이 우상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벵엘’을 ‘죄악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벵아웬’으로 언급하셨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리(財利)에만 관심을 두고 살 경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박탈당하게 된다.

17. **Q**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로 인해 어떻게 선포하셨는가? (16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센 암소처럼 완강하므로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다.
- (2) 여기서 ‘넓은 들’이란 변영의 상징으로서(시 18:19; 31:8; 118:5; 사 30:23)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대로 생활함으로써 인해 그들을 먹이시고 온갖 종류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리고(1절)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먹이지 않으시고 호트러 놓으시며 허허 벌판을 홀로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작정하셨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들은 어린 양이 팡야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이방의 침략을 받고 열국으로 흩어질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19절).
- (5)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열락이나 명예에 정신을 쏟고 있다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보호도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가까이 다가온다.

18. **Q** ‘에브라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7절)

- A** (1)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본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요단 강과 지중해 사이의 땅

을 얻고 살았던(수 16:5-9) 에브라임 자손들로 구성된 지파의 이름이었다.

(3)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칭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왕상 12:25).

19. **㉠**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려 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연합하였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부르>로서 이것은 부부 연합(말 2:14)과 우상 관계(사 44:11)에 쓰이는 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끈으로 묶여진 것을 의미하며 '홀리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바알과 혼동하는 사상에 깊이 몰들어 결국 우상과 짝이 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4:19; 사 44:11; 고전 10:20).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에브라임을 그냥 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후의 모든 일을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해야 할 일은 다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즉 전하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전 3:6, 7).

20. **㉠** 우상과 연합한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가? (18절)

- ㉠** (1) 백성들은 마시기를 다하고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는 죄를 짓고 있었다.
- (2) 즉 백성들은 술과 음행 등 그들의 육욕을 채워 주는 것이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여 방탕하였으며 또한 방백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 바알을 섬기며 뇌물과 부정한 재물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받았다.
- (3) 이와 같이 그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은 그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진다 면 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무디어져 갈 것이다(참조, 딤후 3:16, 17).

21. **㉠**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잤나니'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절)

- ㉠** (1)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나 쪽정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고 열국에 흩어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 (2) 이러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B. C. 722년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앗수르로 끌려갔으며 열국으로 흩어졌다(왕하 17:6).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대하 7:19-22).

2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에게 드렸던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노예가 될 때 패망과 수치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잠 11:19; 젤 18:4).

제 5 장 에브라임의 교만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다 / 3-7 하나님께서 간음한 백성에게 떠나실 것을 선포하시다 / 8-14 분노하신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시다 / 15 이스라엘이 알은 회개를 하다

1 제사장들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깨달으라 왕족들이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울무가 되며 다 불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2 패역자가 살륙죄에 갇히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3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4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가지로 넘어지리라

6 저희가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려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7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다

8 너희가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나

민에서 네 뒤를 쫓는다 할지이다

9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뛰어난 일을 보였노라

10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너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좃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3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 잡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 낼 자가 없으리라

15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 르기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앗수르를 의뢰한 이스라엘과 이를 본받은 유다에게 당신의 징계를 ‘좀’, ‘썩이는 것’ 으로부터 ‘사자’, ‘젊은 사자’ 로 묘사하시면서 징계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셨다.
- (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한 인간의 도움이나 우상이 결코 그들을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구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중도에서 그만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당신의 심판에 소환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을 당신의 심판에 소환하셨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고귀한 신분과 성품을 지닌 제사장들이나 왕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남들처럼 죄를 짓는다면 그들의 신분과 성품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구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또한 수요가 많고 보잘것없는 평민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경우 그들이 제사장과 통치자에게 오도되었다고 탄원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위나 명예가 결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삼상 16:7).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이 미스바에서 울무가 되며 다불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미스바’는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삿 10:17)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부르는 지역이다. 또한 ‘다불’은 에스드라엘른 평원의 동북 끝에 위치한 높이가 553m 되는 등근 산을 가리킨다(삿 4:6).
- (3) 이곳에서 새 사냥군들은 덫(함정)과 새 그물을 펼쳐 놓고 새 사냥을 종종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새 사냥군의 덫과 그물에 비유하신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들이 온갖 우상의 숭배자였을 뿐 아니라 정의의 재판과 모든 공의를 뒤엎어 놓았으며 더 나아가 요단 동편 미스바와 서쪽 다불 산에서 우상 풍속을 행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울무와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음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다.

4. **㉠** 패역자(悖逆者)는 어디에 빠졌는가? (2절)

- ㉠** (1) 패역자는 살륙 죄(殺戮罪)에 깊이 빠졌다.
- (2) 여기에서 ‘살륙 죄’란 히브리어로 <샤하트>인데 ‘죽이다’, ‘희생하다’란 뜻을 지녔다. 이 말은 원래 보통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희생 제사를 멸시하는 의미에서 살륙 죄라고 사용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희생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살륙이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거짓되고 이상한 예배 형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예배의 형식들이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도 없고 기록해질 수도 없으며 다만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삼상 15:22).

5. **㉠**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이제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 실제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명사로서(사 7:17)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 종교의 예배 의식을 따른 사실을 꾸짖으시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아무리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5) 왜냐하면 인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변명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렘 11:20).

6.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마음’이란 히브리어로 <무야흐>인데 이것은 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 영

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 속에 음란한 생각과 우상 바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4:12).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상의 재리(財利)나 쾌락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골3:2, 8).

7. **㉠**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의 교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5절)

- ㉠** (1) 이스라엘의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불의를 증거하였다.
- (2) 여기에서 '교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개은)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높아짐에 따라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며 방자(放資)하게 구는 상태를 의미한다.
- (3)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B. C. 782-753)의 통치하에 국력이 크게 신장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13:1).
- (4) 이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여지자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과 우상을 섬긴 덕택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오만한 생각은 자기들의 창조주이며 구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겸손한 마음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 (5)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의 외침과 교훈을 거부하게 만들었다(7:10; 암 6:8).
- (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간적인 힘만을 의지했던 교만한 백성들을 방관치 않으시고 넘어뜨리신다(슌 3:11).

8. **㉠**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때와 소 때를 끌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형식적인 희생 제물로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그들에게 이미 은혜의 때는 지나가고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물질이나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을 절실히 찾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시 34:18; 마 12:20).

9. **㉠** 이스라엘이 사생자(私生子)를 낳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여호와께 정조(貞操)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배신과 거짓된 행위를 통하여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편되신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던 길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 그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나타낸다(말 2:14).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 자녀가 본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

문이다(참조, 엡 6:4).

10. **㉠**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선언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새 달'이란 다음 새로운 초생달이 뜨는 한 달 또는 백성들의 절기일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첫째, 그와 같은 기쁨의 절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변하여 자기들의 기업 곧 하나님 대신 자기들의 분깃으로 선택한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과 둘째, 한 달이란 짧고도 정해진 기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패역한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11. **㉠**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과 호각과 전쟁의 합성을 지르라고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벳아웬에서 '베나민아 네 뒤를 쫓는다'라는 전쟁의 합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기브아와 라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의 인접 도시들로서 '기브아'는 유다의 전진 기지였고, '라마'는 이스라엘의 전진 기지였다. 이 두 곳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나민 땅에 속하였으며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위급을 알리는 봉화를 울리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3) 그리고 '벳아웬'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벳엘'을 가리킨다(참조, 4장 ㉠16). 벳아웬이 전쟁의 합성을 지른 대상은 '베나민'인데 이 '베나민'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4)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회개할 것을 수없이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킬 줄 몰랐던 이스라엘과 또한 이들의 죄악을 본받은 유다에게 당신의 심판이 곧 내려질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참조, ㉠13).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나팔과 호각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경고하시기 위함이었다.
 (2) 다시 말하자면 나팔과 호각은 위급한 상황을 경고해 주는 악기로서(8:1; 민 10:2; 31:6; 렘 4:5; 6:1; 암 3: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당신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13. **㉠**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 (1) 에브라임은 그날에 황무하게 될 것이다.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까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철저하게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다.
 (3)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화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더 심한 방법으로 징계하신다(참조, 잠 3:11, 12).

1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연 있을 일'을 보여 주셨다.
 (2) 여기에서 '떨연 있을 일'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미 정해져서 피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스러운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변경할 수 없는 최후의 형벌을 선포하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무시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로 오는 징벌은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마 7:17-20; 갈 6:7).

15. Q 하나님께서는 유다 방백들이 어떤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10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계표(地界標)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지계표'란 돌로 재산이나 땅의 경계를 삼았던 표적(신 19:14; 잠 22:28; 23:10)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지계표'를 착취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셨다(신 27:17).
- (3) 그런데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같이 시리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 (4) 또한 유다는 이스라엘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알을 숭배하였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방백들을 가리켜 지계표를 옮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듯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16. Q 에브라임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11절)

- A** (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했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더욱 좋아했다는 뜻이다.
- (3) 여기에서 '사람의 말'이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엘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했던 여로보암과 그 이후 패역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명령을 가리킨다(왕상 12:27-30).
- (4) 이와 같은 패역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좇았는데 그 이유는 권세자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심 때문이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치(相馳)되는 인간의 명령을 좇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 (5) 본절의 사건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명령이 아무리 좋고 또는 강제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이라면 결코 좇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명령을 좇는 것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참조, 살전 5:22).

17. Q 에브라임은 자신의 병을 깨닫고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는가? (13절)

- A** (1) 에브라임은 앗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가 에브라임을 고치거나 치료하지 못하였다.
- (2) 여기서 에브라임이 자신의 병을 깨달았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깨달았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에브라임이 자기 병과 상처를 보면서도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보지 못하고 또 그 점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정치적 어려움을 깨달은 이스라엘은 앗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어(왕하 15:19) 화친하고자 했으나 결국 헛된 수고로 끝났다(왕하 17:3, 4).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직 그 선결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히 12:5-13; 계 3:19).

18. Q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한 야렙 왕은 누구인가? (13절)

- A** (1) '야렙'은 앗수르어로 '크다'는 뜻이며 '대왕'을 가리킨다.

- (2) 흑자는 '야렘 왕'을 앓슈르단 3세(Ashurdan III, B. C. 771-754), 티글랏 빌레셀 2세(Tiglath-Pileser), 풀(Pul, B. C. 744-727), 혹은 사르곤 2세(Sargon, B. C. 722-705)가 왕이 되기 전의 이름이라고 주장한다.
- (3) 그러나 이 시기의 이스라엘 연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야렘 왕'이 누구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호세아가 앓수르 왕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19. **㉠**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움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사자'란 포효 소리로 동물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먹이로 잡은 짐승을 갈 같이 찢기도 하는 동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나타낸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좁'과 '씩이는 것'과 같이(11절)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셨지만 그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 곧 앓수르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치명적이고 엄중한 심판을 가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 9:13, 14).

20. **㉠** '나 곧 내가 움켜 잡지라'란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되 아무도 그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해 줄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2) 여기에서 '나'를 두 번씩이나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꼭 행하실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B. C. 722년 앓수르 왕 살만에셀(Sharmaneser, B. C. 727-722)에 의해 앓수르로 끌려감으로 인해 성취되었다(왕하 17:3-6).

21. **㉠**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내 곳'이란 '하늘' 또는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를 가리킨다(사 26:21; 미 1:3).
-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며 유다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뜻이다(렘 14:8, 9).

22. **㉠**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당신의 처소에서 기다리실 것이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이 곧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은 때문임을 보여 준다.
- (3) 따라서 그들이 회복될 희망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참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길뿐이다.
- (4)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해서 B. C. 722년에 앓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히스기야(B. C. 728-725-697)의 기도로 인해(왕하 19:13-19) 앓수르로부터의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왕하 19:35).
- (5)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느낄 때 우리의 본분은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임을 알자(잠 28:13; 요일 1:9).

제 6 장 여호와를 알자

단락구분 1-3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4-6 인애 없음을 책망하다 / 7-10 종교적 부패를 책망하다 / 11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다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팻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계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11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의 전반부에는 전장(前章)에 이어 회개한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언급되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벽 빛',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당신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3)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한 행위, 즉 인애가 없는 제사와 살인과 사악과 우상 숭배의 가증한 일을 고발하시면서 인애와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행하는 체행적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다.

2. ㉠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인가? (1절)

- ㉠ (1) 그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기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 (2) 이와 같은 백성들의 고백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 그들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고백이다.
- (3)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그들의 회개 운동이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며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가족과 이웃에게 책임을 돌리며 핑계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눅 13:2, 3; 15:18; 요일 1:9).

3.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기간에 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2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제 '삼 일'에 그들을 일으키리라고 말할 것이다.
- (2) 여기서 '이틀 후'나 '삼 일'은 대단히 짧은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한편 그들이 제 '삼 일'에 일으킴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미 7:18; 행 3:19).

4. **㉠**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2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고 말할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 얼굴을 돌리셨지만(5:15)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당신께로 나아옴으로 인해 다시 그들에게로 당신의 얼굴을 돌려 주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 (4) 회복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신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골 3:1-9).

5. **㉠** 이스라엘은 장차 고통 중에서 서로 무엇을 호소할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서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할 것이다.
- (2)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체험적 신앙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회개시키실 때 그들이 당신께 전심(全心)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그와 더불어 당신을 아는 마음도 주신다(참조, 렘 9:24).

6. **㉠** 이스라엘은 장래 받을 고난 중 하나님의 나오심에 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3절)

- ㉠**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오심이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비'란 히브리어로 <계림>인데 이것은 '이른 비'로서 이 비가 내려야 땅이 물러져 경작이 용이해진다. 또한 '늦은 비'는 히브리어로 <말코쉬>인데 이것은 늦게 심은 곡식을 이롭게 하며 우기를 마감하는 봄비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어둔 밤이 지난 뒤 새벽이 돌아오듯 확고히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서 그들의 황폐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참조, 신 11:14).
- (4) 한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 상태에서 돌아옴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삼상 23:4; 시 72:6; 눅 1:77, 78).

7. **㉠**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인애(仁愛)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그 이유는 에브라임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그것은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사랑, 경건, 친절'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뿌리를 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서도 경건하고 선한 체하며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 인애, 회개, 감사,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참조, 말 1:6, 7, 13, 14).

8. C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5절)

- A**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차브>인데 그것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조각한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본문은 조각가들이 굳은 나무를 잘라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듯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깎고 다듬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패역한 부분들을 깎고 다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골 1:23; 딤후 1:11; 2:15).

9.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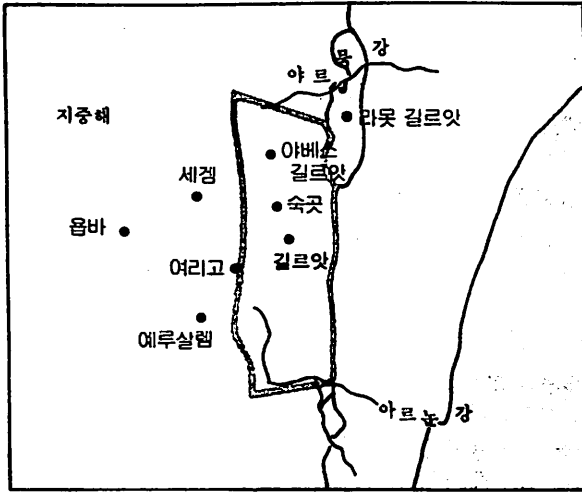
- A** (1)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燔祭)보다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 (2)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의식적인 제사에만 치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제사보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목적은 제사의 태만함을 경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시 50:8)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자비와 당신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각성케 하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예식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시 5:16, 17; 사 1:11) 깨닫고 경건의 모양이나 의식보다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생활 중에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딤후 4:6-8).

10. C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를 누구에 비유하셨는가? (7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셨다.
- (2) 과거에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창 2:17)고 하신 명령을 어김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는 형벌을 받았다(창 3:24).
- (3)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출 19:3-16; 20:1-17)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외형적인 예배와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들에게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그들이 언약을 위반한 대가(代價)로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에서 머지않아 쫓겨 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11. ㉠ 길르앗에서의 백성들의 부패는 어느 정도인가? (8절)

- ㉠ (1) 길르앗은 피의 발자국으로 얼룩진 악인들의 성이었다.
 (2)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전지역을 가리킨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라.



- (3) 길르앗 지역 가운데 '라못 길르앗'은 레위인의 관할 구역으로서 실수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숨겨 주는 도피성(신 4:43)이었으며, '마하나임'은 야곱이 천사를 만난 요단 동편의 땅(창 32:2)을 가리킨다. 또한 '미스바'는 사무엘 당시 백성들의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곳이었다(삼상 7:5-8).
 (4) 그런데 이와 같은 곳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감에 따라 점점 부패하여져서 살인과 피흘림의 장소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었던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한 재물을 모았고(9절),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졌던 곳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졌다(5:1).

12. ㉠ 제사장의 무리들은 세겜 길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9절)

- ㉠ (1) 제사장들은 강도 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사악을 행하였다.
 (2) 여기서 '사악'이란 히브리어로 <짐마>인데 이것은 '악한 계획', '악한 음모'를 뜻한다.
 (3) 따라서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뜻이 일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강도 떼와 같이 잔인하고 교활하였다.
 (4) 한편 이처럼 제사장들이 불의한 행위를 했던 세겜 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벨엘로 가는 통로여서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갔으며 명절 때에는 더욱 많은 백성들이 이 길을 통과하였다.
 (5) 이와 같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참조, 약 3:1).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무엇을 보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셨다. 이 가증한 일이란 다름아닌 에브라임이 행음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을 가리킨다.
 (2) 에브라임이 행한 행음은 첫째, 백성들의 육적인 음행을 가리킨다(4:14). 둘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음행이 이스라엘 집 곧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행하여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아무리 은밀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든 일을 보시고 계시며 또한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대상 28:9; 시 11:4; 33:13; 렘12:3).
14. ㉞ 하나님께서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남유다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11절)
- ㉞ (1)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때 남유다도 추수할 일을 정해 놓으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을 근절시키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 (3) 또한 '추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유다에게도 가혹한 징계를 가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가혹한 멸망의 징계를 받았으며(왕하 17:18-23), 유다 역시 멸망을 면하였지만 B. C. 711년과 B. C. 701년에 앗수르의 침략을 받았다(왕하 18:9, 13).

연구자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仁愛), 호세아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인애'(6절)이다.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자애', '궁휼', '열의', '경건' 등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인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졌던 특별한 언약 관계(참조, 11:1; 출 19:1-8)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란 특별한 계약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충성'과 '헌신',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며 또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사랑'과 '애정', '궁휼'과 '자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신 28:1-6).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같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말았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호세아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토록 인도하는 것이었으니 그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이다(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1절)'라고 외쳤던 것이다.

제 7 장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

단락구분 1-7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조(王朝)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다 / 8-12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앗수르를 의지하다 / 13-1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식하는 죄를 책망하시다

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계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때 지어 노략질하며

2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3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4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5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6 저희는 엷드리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의 일어나는 것 같도다

7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엷드리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덜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

는도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앗수르로 가는도다

12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13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앗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고

14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5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엷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 Q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A (1) 본장의 주제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범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다.

(2) 즉 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은 음란한 행위와 거짓과 불법을 행하면서 정권 탈취에 광분(狂奔)하였으며 백성들은 그 왕과 방백들의 비위를 맞추며 악과 거짓으로 아첨했다.

(3) 그들의 죄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습과 습관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감염되어 본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한 채 애굽과 앗수르의 도움을 찾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날아갔다.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애굽과 앗수르로 날아가는 길 위에 그물을 쳐 오히려 그들을 앗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며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5) 한편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과학, 스포츠, 예술 등에 심취하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드시 징계하신다.

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실 때에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2) 여기에서 '에브라임의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뜻하며 '사마리아의 악'은 특별히 지도 계급의 죄악을 의미하고 있다.
 (3)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며(참조, 4장 ㉠18)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방백들이 사는 수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악된 상태를 보여 주신 것은 보편적이고 간단한 징계로는 그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다.

3. **㉠**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은 어떠했는가? (1절)

- ㉠** (1) 그들은 꾀사(詭詐)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였다.
 (2) 여기서 '꾀사'란 히브리어로 <쇠케르>로서 사기와 거짓을 의미하며, '행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좌알>으로서 '무엇을 만들어 내다'라는 뜻을 지녔다.
 (3) 따라서 그들이 '꾀사를 행하며'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거짓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을 꾸며 만들어 내서 말과 행동으로 사회의 물의를 빚었음을 뜻한다.
 (4) 이와 같은 백성들의 삶은 그들의 안팎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느 부분도 건전하고 온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음을 의식하고 더욱더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4. **㉠**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러 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여러 악'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꾀사'와 '도적질'과 '노략질'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1절).
 (3) 이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는 그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곧 하나님을 죽은 우상과 같이 여겼고 심판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바알과 동일시 여기고 바알의 풍습을 좇아갔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것이다.
 (5)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학이나 물질 혹은 세상의 권력과 동일시 여기며 그 같은 것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5. **㉠**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위는 어떤 상태에까지 이르렀는가? (2절)

- ㉠** (1) 백성들의 악한 행위는 그들을 에워싸고 또 하나님의 목전(目前)에 이르렀다.
 (2) 즉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나 두려움 없이 계속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악 속에 포위되어서 어떠한 해결책도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으며 또 이와 같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날같이 보고 제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비해 두신다.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죄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드러나 있다

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숙된 삶을 누릴 수 있다(시 11:4; 33:13).

6. **㉠**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였는가? (3절)

- ㉠** (1) 그들은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였다.
 (2) 이것은 백성들 전체가 왕에게 아침을 하면서 복종하였고 거짓말을 통하여 방백들을 즐겁게 하였다는 말이다.
 (3) 이 말은 곧 왕과 방백들이 그들이 세운 악한 법과 전례를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따르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음을 의미한다.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과 방백들에게 아침하며 따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망 하시면서 그 책임을 결코 통치자들에게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5)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악으로 이끈 악한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법을 지키고 따른 백성들에게도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5: 11).

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다 간음하는 자’ 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간음’이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 행위를 가리킨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간음한 자’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 왕과 방백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행위를 책망하신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떠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요일 5:21).

8. **㉠**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의미하며 그 화덕 속에 타는 불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달궈진 화덕’ 같다는 것은 왕과 방백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인간의 정욕을 좇아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있음을 가리킨다.

9. **㉠**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왕의 날에 무엇을 하였는가? (5절)

- ㉠** (1) 왕의 날에 방백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를 하였다.
 (2) 여기서 ‘왕의 날’이란 왕의 즉위 기념일, 혹은 왕의 생일을 가리킨다.
 (3) 정상적인 상태라면 왕의 날에 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도 계속해서 자기의 직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슬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다.
 (4)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그 신하들은 만취와 무절제에 완전히 빠져서 더 이상 어떤 위엄이나 품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즉 왕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광대와 같이 되어서 오만한 자들과 어울렸다(참조, ㉠ 10).

10. **㉠** 왕의 날에 왕은 누구와 더불어 악수를 하였는가? (5절)

- ㉠** (1)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하였다.
 (2) ‘오만한 자들’이란 히브리어 <로체침>으로서 본래 ‘남을 경멸히 여겨 비웃는 자’ 또는 ‘결과 속이 다르게 웃어 넘기는 자’란 뜻인데 여기서는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3) 왕은 마땅히 그런 자들을 침묵시키며 면박을 주어 수치스럽게 해야만 했다. 그러나 왕은 타락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 오만한 자, 즉 불경건의 극치에

도달한 자들과 협력하였다.

11. ㉠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엎드리어 기다렸는가? (6절)

- ㉠ (1) 그들은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준비한 화덕과 같이 마음을 예비하고 엎드려서 기다렸다.
- (2) 여기에서 '엎드리어 기다리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브>인데 이것은 남을 해하기 위해서 사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며 엎드려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 (3) 빵 만드는 자의 화덕과 같이 악한 백성들은 모종의 악한 계교를 꾸미고 야심과 원한이나 음란에 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란 곧 재판장들을 죽이고 왕위를 탈취하는 것이다(참조, ㉠ 12).

12. ㉠ 악한 백성들은 음모를 꾸미고 난 뒤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올라서 자기들의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다 엎드리게 했다.
- (2) 여기서 그들의 재판장은 바로 왕들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예언은 예로보암 2세(B.C. 793-753)의 후기 시대에 적용되는 연속적인 왕가의 혁명을 암시한다.
- (4) 즉 스가라(B.C. 753-752)는 살롬(B.C. 752)에 의해(왕하 15:10), 살롬은 므나헴(B.C. 752-752)에 의하여(왕하 15:14),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B.C. 742-740)는 베가(B.C. 752-740-732)에 의하여 왕위를 찬탈당했다.

13. ㉠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떠한가? (7절)

- ㉠ (1)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 (2) 즉 왕들이 하나하나 살해되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그들을 치려고 펼쳐진 것을 보고 치지 않을 시기를 기원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 (3) 왜냐하면 왕은 오만한 자들과 협력하며 방백들은 술취해 병들었고 백성들은 강도와 노략질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14. ㉠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에브라임의 어떤 면을 탄식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混雜)된 모습을 탄식하셨다.
- (2) 여기에서 '혼잡'이란 히브리어로 <발랄>인데 제사 떡 반죽에 기름을 섞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 뒤섞이게 해서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 (3) 본래 이스라엘은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레 20:24, 26)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욕 1:2; 3:1, 2).
- (4)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민족의 풍습과 습관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감염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고 혼잡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 (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만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참조, 갈 5:6; 요일 1:7).

15. ㉠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된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혼잡된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煎餅)으로 비유하셨다.
- (2) 여기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타고 다른 한쪽은 밀가루 반죽 그대로 있어 그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없는 떡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의 혼란한 상태, 즉 한편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위선된 삶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의 풍습과 우상 숭배를 좇아서 이방 민족과 다름없이 세속화된 상태를 책

망하신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부패한 풍습과 타락한 모습들을 본받고 불신자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이다(참조, 제 3:15, 16).

16. **㉠** 이스라엘은 열방에 혼잡된 결과 자신들의 처한 어떤 상황을 깨닫지 못하였는가? (9절)

- ㉠** (1)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삼키웠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였다.
- (2)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칼>인데 이것은 ‘먹다’, ‘계절스럽게 먹다’, ‘휩쓸어 멸망시키다’, ‘강자가 약자를 삼키다’란 뜻을 지녔다(참조, 시 14:4; 잠 30:14).
- (3) 이와 같은 상황은 아람 왕 하사엘(Hazael, B. C. 846-798, 왕하 8:12; 10:32, 33)과 그의 아들 벤하닷(Benhadad, B. C. 789-?, 왕하 13:7) 그리고 앓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B. C. 744-727, 왕하 15:19, 29) 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
- (4) 특히 풀(Pul)이라고도 불린 앓수르 왕 빌레셀 3세가 침공하여서 평화 수호 조약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의 막대한 재물을 착취해 간 사건을 가리킨다(왕하 15:19, 20).
- (5)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같은 사건들이 그들의 백발을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즉 멸망의 슬픈 징조임과 동시에 이방 나라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쫓’(5:12)처럼 서서히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 (6)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일들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살후 2:11, 12).

17. **㉠** 이스라엘의 열굴에 증거가 되어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그들의 교만(참조, 5장 **㉠** 7)으로서 이스라엘의 힘을 쇠퇴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 (2)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즉 앓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왕하 15:19, 20).
- (3)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더욱 멸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행위였다.
- (4)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악된 길에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를 자초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이다(잠 3:11, 12; 히 12:5, 6).

18. **㉠**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였는가? (11절)

- ㉠** (1)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며 앓수르로 갔다.
- (2) 즉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며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믿을 수 없는 애굽과 앓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가 독수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3) 당시 이스라엘은 친애굽파와 친앓수르파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앓수르 중간에서 이리 불고 저리 불고하는 편의주의 외교를 펼쳤다.
- (4) 이와 같은 그들의 외교는 결국 앓수르의 노여움을 사게 되 살만에셀(Shalmaneser, B. C. 727-722)의 침공을 불러들여 패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왕하 17:4-6).
- (5) 이처럼 자기들의 편리와 형편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

결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인간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1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앗수르와 애굽으로 갈 때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서 들려주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징계하는데 이러한 징계가 인간의 창점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계의 가르침, 즉 악한 인간들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급작스럽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집회 시간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들려주신 말씀임을 언급하셨다(5:9).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머지않아 도래할 징계에 대해 결코 핑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날에 결코 자신들의 불의를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성경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되어졌기 때문이다(참조, 롬 2:18-20).

20. **㉠** ‘징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징계’는 히브리어로 <아에시렘>인데 이 말은 ‘훈련시키다’, ‘바로잡다’, ‘훈내 주다’라는 뜻을 지녔다(신 4:36; 8:5; 시 94:12; 118:18; 사 28:26).
- (2)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둘째,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성립되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해 세째, 주의 자녀들에게 복종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네째, 그들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다(히 12:8-13).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참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잠 3:11, 12; 히 12:7-9).
- (4)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악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 잡기 때문이다.
- (2)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높은 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인들의 풍속과 가증된 행위들을 좇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왕하 17:9-18).
- (3) 이처럼 이스라엘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는 강한 탄식과 슬픔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의 비참한 미래의 운명을 선포하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모든 악과 저주의 근원이 되며 그 자체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참조, 엡 5:17, 18).

22. **㉠** 하나님께서는 왜 패망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범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쉬>인데 ‘술취하여 흥청거리다’, ‘반항하

여 반란을 일으키다', '종교적으로 범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당신과 맺으신 언약(출 19:3-8; 20:1-26)을 파괴하고 당신께 반역함으로 인해 그들이 패망하리라는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신다.

23.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속하려 하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프템>은 미래를 나타내는 1인칭 미완료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이란 뜻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패역한 백성들은 오히려 진리를 거스리는 사악한 행위들을 계속하였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신앙적 슬픔은 전혀 없이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범법하더라도 일단 당신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참조, 신 7:8-10).

24. **㉠**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14절)

- ㉠** (1) 그들은 성심(誠心)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부르짖었다.
- (2) 여기서 '성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브>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 마음은 사람의 의지(렘 32:41; 톨 6:7), 감정(신 19:6; 전 7:8), 생각(창 6:5; 히 4:12)의 총칭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진 유일한 기관이며(잠 19:21)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실 때 보시는 기관이다(삼상 16:7).
- (3)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비록 모든 형식은 갖추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구원을 호소하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를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패역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 패역을 회개하지 않고 단지 형식적인 기도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신 1:45; 삼상 14:37; 잠 21:13).

25. **㉠**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4절)

- ㉠** (1) 그들은 단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을 뿐이다.
- (2) 여기에서 '슬피 부르짖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에리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지 의(衣)·식(食)·주(住)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망하여서 그저 울부짖음을 의미한다.
- (3) 이같이 진정한 마음의 호소가 없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미 3:4).
- (4)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충동적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으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약 4:3).

26. **㉠**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였다.
- (2) 여기에서 '모이면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르>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같은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납게 모여 오는 상태를 의미한다(렘 30:23).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곡식과 포도주, 즉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탐욕적인 마음을 품고 떼지어 몰

려오는 등 세속적인 것에만 그들의 온 정열을 쏟았다.

- (4) 그러나 이와 같이 탐욕을 목적으로 모인 이스라엘과는 달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마 18:20) 서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행 2:47;5:12) 서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행 2:42).

2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하였다고 말씀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꾀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어 나라를 보존하게 해주셨으며(참조, 신 2:33, 36; 수 6:16)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3)에 이르러서는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번영되게 해주셨음을 가리킨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동일시 숭배하였고 온갖 악한 행위들을 자행하였다.
 (4)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셨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28. **㉠** 하나님께서는 강건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 비유하셨다.
 (2) '속이는 활'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쏘기에 알맞은 듯이 보이며 굽거나 당기는 데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활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활에 힘을 가하면 활도 시위도 끊어지고 화살은 과녁을 향해 날아가긴커녕 궁수의 발 앞에 떨어지고 만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개혁과 회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거짓되고 위선된 것이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였다.
 (4)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선의 대가로 더 큰 징계를 예비하신다(7:12).

29. **㉠**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이 그들의 거친 말로 인하여 장차 어떤 결과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거친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자암>은 '분개', '무례', '욕설'의 말을 의미하며 그 말의 어근은 '성난 악대같이 푸르럭 거린다'는 아람어에서 왔다.
 (3)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자기들 주의의 모든 자들을 헐뜯고 호명하며 저주하였던 방백들은 앗수르의 칼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구원의 손길을 뻗칠 줄 알았던 애굽에게 오히려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참조, 사 30:3, 5).

본장의 요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15절).

제 8 장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

단락구분 1-3 압박한 대적의 짐락 / 4-7 불의한 왕과 우상의 피멸을 선언하다 / 8-10 앗수르를 의지한 것이 헛된 수고로 판명나다 / 11-13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 / 14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은 심판

1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2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3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싫어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4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바며 저희가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5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6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숴뜨리우리라

7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설혹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즉 이제 열국 가

운데 있는 것이기때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9 저희가 혼로 처한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10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음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의 지위 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11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고도다

12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던 것으로 여기도다

13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14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1. ㉠ 본장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책망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이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신이라는 사실과 많은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책망하셨다.
- (3)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기인한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의 결과로 그들이 섬긴 우상과 제단들을 부수어뜨리시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여 과거에 애굽에서 당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5) 한편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상상하거나 많은 제도와 의미 없는 형식을 제정하고 그것에 얽매이므로 마음에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 (6)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있거나 외형적인 형식을 중요시

하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삼상 15:22;16:7).

2. **㉠**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여호와와 집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으로서 ‘나는 네 하나님 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시내 산의 언약(출 20:1-17;24:3-8)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맺으신 언약과 율법을 우상 숭배와 이방의 불의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지 않아 그들의 대적이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앗수르의 침략을 가리킨다. 즉 앗수르 왕 살만에셀(Shalmaneser, B. C. 727-722)이 자기들을 배반하고 애굽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B. C. 724년에 침공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다(왕하 17:3-6).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삶이 대적의 침략을 불러들여서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사 24:5; 마 21:43).

3. **㉠** 이스라엘은 대적이 덮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가? (2절)

- ㉠** (1) 그들은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2) 이와 같은 그들의 부르짖음은 참된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 곧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역경을 피하기 위한 뉘그러오 탄식에 지나지 않는다.
 (3)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며 행동으로는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다.
 (4) 한편 히브리 원문에는 본절에 기록된 ‘장차’라는 말이 없는데 ‘부르짖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이즈아쿠>가 미완료형으로 현재형 혹은 미래형으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장차’라는 말이 삽입되었을 것이다.
 (5) 우리는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의 기도가 단지 하소연에 불과한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과거에 행한 악한 길에서 벗어나 온전히 선한 길로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겔 18:2).

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善)을 싫어 버렸으니 대적이 따를 것이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2) 여기에서 ‘싫어 버렸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흐>는 ‘멀리 제거하다’, ‘먼 곳으로 던지다’, ‘싫어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축복을 싫어하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든 정의와 정직에서 떠났다는 것을 뜻한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과 축복을 멀리 쫓아낸 그들에게 그들 자신도 원수, 곧 앗수르에게 쫓겨다닐 것을 선언하셨다.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보호를 거부하고 멀리하게 될 때 신앙의 대적들 곧 사단과 세상의 모든 패역한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물려온다(참조, 벧후 3:8).

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우상이 무엇 때문에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또 그 은, 금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파멸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왕상 11:31;14:7)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에 의하여 세워졌음을 의미한다(참조, 왕상 11:39).
- (3) 그러나 이보다 더 악한 것은 그들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이다. 여로보암은 그의 혁명이 성공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었으며(왕상 12:28-33) 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그 같은 사악한 행위를 본받아 계속 우상을 숭배하였다.
- (4)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B. C. 931-910) 이후 약 200년간에 걸쳐서 18왕이 등장하였는데 그 어느 왕가도 예외 없이 다음 일어나는 왕에게 모두 전멸되었다. 특히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B. C. 793-753) 이후에는 약 11년간에 걸쳐서 5왕조가 난립하는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왕하 15:8-30).
- (5) 이와 같은 이스라엘 말기의 빈번한 찬탈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행위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서 일에 착수하고 종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6. **㉠**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섬기는 송아지 신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부숴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마리아'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7:1;10:5).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송아지 신을 부숴뜨리고자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다.
- (3) 즉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는 송아지 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성우(聖牛) 아피스(Apis)의 형상을 본 딴 이스라엘 자신의 고안품이며(출 32:4, 8; 왕상 12:28), 장인의 기술과 수고로 생겨난(신 27:15) 거짓 신이었다.
- (4) 백성들이 이와 같은 거짓 신을 섬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출 20:3-5)을 어긴 행위였다. 따라서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고 우상 또한 부숴뜨리우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 (5) 오늘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물질이나 과학, 사상 무력 등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다(미 5:13; 행 17:29).

7. **㉠**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심고 거둘 것이라고 하였는가? (7절)

- ㉠** (1) 호세아는 우상을 섬기며 술책과 말의 위장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불신앙과 악의를 엄폐(掩蔽)하는 것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아서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하였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풍요와 평화와 승리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설령 우상 숭배의 행로 속에서 잠깐 동안 번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광풍 곧 이방 사람들에게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 (3) 이와 같은 호세아의 말은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예배를 드리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흑암에 거하는 것이 무익한 봉사이며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행 17:29).

8. **㉠** 호세아는 열국 가운데 흠어진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8절)

- ㉠** (1) 호세아는 이미 열국에 삼키워서 이제는 열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란 질그릇과 같이 혼하고 천하여서 조그마한 흠만 생겨도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참조, 렘 48:38) 장차 이스라

엘이 열국 중에 흩어져 멸시와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다.

- (3) 그런데 호세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로 닥쳐오는 이제(now)의 일로 선포하며 경고하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날 되어지는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예언이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고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마 24:3-14).

9. **Q** 호세아는 앗수르에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을 무슨 짐승과 같다고 했는가? (9절)

- A** (1)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다고 하였다.
- (2) ‘들나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페레>는 ‘뛰어나다’, ‘홀로 있다’, ‘고집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정육적인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로도 사용되었다(렘 2:24).
- (3) 실제로 들나귀는 어리석고 완고하여서 다루기 힘든 짐승일 뿐만 아니라 결국 광야에서 야수의 밥이 되거나 주려 죽는 처량한 짐승이다(참조, 욕 11:12).
- (4)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이 같은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뜻을 거부하고 앗수르의 동맹을 맺고 도움을 청하였던 것을 꾸짖으면서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을 비유한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이 결국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0. **Q** 하나님께서는 값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에브라임에게 어떤 결과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 10절)

- A** (1) 에브라임이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모으고 모든 방백과 임금에 지워 준 짐으로 인해 쇠(衰)하도록 하실 것이다.
- (2) 즉 이 말은 앗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왕 므나헴(B. C. 752-742)이 모든 방백의 임금 곧 앗수르 왕에게 은 일천 달란트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무마하였지만(왕하 15:19, 20) 이와 같은 조치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 (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즉 앗수르(6:13; 10:6)와 애굽(12:1)에 예물과 값진 기쁨을 보냄으로써 해결하려고 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무거운 하나님의 징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잠 3:11, 12).

11. **Q** 에브라임이 많은 제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A** (1)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 (2) 여기에서 ‘죄를 위하여’란 표현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북이스라엘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루살렘 제단을 반대하여 세운 많은 제단들이 그 만든 이유와 시작부터 죄악이었다는 견해이고(왕상 12:26-33) 둘째, 죄를 속이기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견해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제단들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한 곳(예루살렘)에만 두라고 말씀하신 율법(신 12:5)을 어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 (4)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난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는 일일 것이다.

- (5) 그러나 현실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며 참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다.

12. **㉠**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범죄한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관계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지혜와 지식(신 4:6) 그리고 규례와 법도(참조, 신 4:1, 8)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들과 관계 없는 것으로 또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였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다.
- (4)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과 같이 이미 쓰여진 것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나 쓰여지게 될 것까지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에크타움>이 미완료형으로 ‘기록했고 또 기록하고, 또는 앞으로 기록될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하신다(딤후 3:15-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 14:21).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 (2) 여기에서 ‘드리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자바하>는 ‘주고 또 주다’(give and give)는 뜻을 지녔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드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형식도 있고 제물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사실은 정성과 믿음이 결여된 탐욕적인 제사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고기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잡아서 먹은 고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형식과 많은 헌금을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정성이 결여되어 탐욕으로 가득 찬 예배라면 절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임을 명심해야 한다(사 1:13; 마 23:23; 히 11:4).

14. **㉠**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절정에 이른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를 하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애굽이 종되었던 집(출 20:2)을 상징하므로 다시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된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애굽으로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견해이며(사 11:11; 미 7:12), 세째는 앗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살길을 찾아 애굽으로 피난갈 것이라는 견해이다.
- (3) 어쨌든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가 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불의대로 그들을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보여 준다.
- (4) 실제로 이스라엘은 B. C. 724년부터 약 3년간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대부분의 백성들

은 앓수르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 백성들은 살길을 찾아 애굽으로 도망하였다(왕하 17:4-6; 사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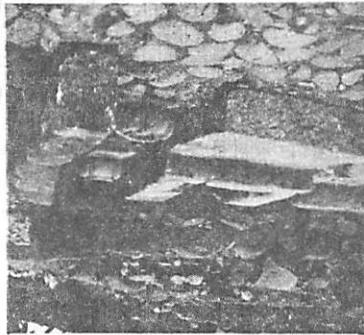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올 때는 모든 죄악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만(미 7:19)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죄를 일일이 기억하시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징계를 가하시는 분이시다(렘 7:12-15).

1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운 전각(殿閣)들과 유다가 쌓은 견고한 성읍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운 이스라엘과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은 유다의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각 곧 호화스러운 궁전들을 건축하였고 남유다는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곳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대하 14:6; 17:2; 19:5; 21:3).
- (3)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나 궁전들을 건축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그러한 것들을 쌓음으로써 나라의 명성을 높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려는 데 있다.
- (4) 이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이(신 27:1-26; 수 8:30) 세속적인 번영과 권력을 의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불 곧 앓수르 군대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였고 그들이 의지한 전각과 견고한 성읍들이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왕하 18:13).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재물 등이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교훈하신다. 성도는 단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로서 공의를 행해야 한다(시 24:1; 학 2:8; 고전 4:2).

화보자료

무너진 송아지 제단.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Jeroboam, B. C. 931-910)이 벧엘과 단에 세웠던 송아지 제단(왕상 12:28-33)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송아지 우상은 없어지고 그 우상을 올려 놓았던 대좌(台座)만 남아 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은 참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애굽인을 본받아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데 골몰해 있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호세아는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숴뜨리우리라'라고 예언하였는데(5, 6절) 이 예언은 B. C. 722년 사마리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제 9 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 2-6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 / 7-9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다 / 10 이스라엘의 배반 / 11-17 하나님의 저주

1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2 타작 마당이 나 술 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3 저희가 여호와와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앓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4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와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와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5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와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6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높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쥘레가 덮일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7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8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군이어늘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9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 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12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니라

13 내가 보전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니라

14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15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16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전장(前章)의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책망에 이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
- (2) 호세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곧 임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한지 백성들을 위해서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 (3)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에서 첫 열매를 봄같이 기쁨과 순결로써 만났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 망덕하게도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과 같이 가증스러워졌기 때문이다.
- (4)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전체적 범위의 심판을 행해신다.

2. **㉠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처럼 행음(行淫)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행음’이란 영적인 행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가리킨다.
- (3)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추수를 타작하면 마치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처럼 바알 신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었고 그들이 거둔 풍성한 수확을 음행의 값 곧 바알의 은혜라고 생각하였다(2:12).
- (4)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애정과 찬미와 신뢰를 바알에게 드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은 기쁨이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였다.
- (5) 이와 같은 호세아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기뻐하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슬퍼하며 애통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나의 능력 또는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의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며 또한 참된 기쁨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빌 3:1; 4:4, 10).

3. **㉠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작 마당이나 술 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2절)**

- ㉠** (1) 호세아는 ‘타작 마당이나 술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즉 호세아는 타작 마당과 술 틀이 그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새 포도주도 그들을 실망시키며 속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3) 이와 같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물질적 축복을 빼앗아 가실 것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심을 알아야 한다(참조, 눅 16:2).

4. **㉠ 호세아는 음행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장차 어디를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가? (3절)**

- ㉠** (1) 호세아는 장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여기에서 ‘여호와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참조, 수 22:19).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곧 그들을 이방인들로 여기셨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경건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17:7-23).
- (4) 한편 이와 같은 호세아의 예언은 앗수르의 침입을 두려워한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또한 피신하지 못한 대부분의 남아 있던 백성들이 B. C. 722년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취되었다(왕하 17:6).
- (5) 본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 나게 된다는 사

실을 교훈한다.

5. **㉠** 에브라임이 앗수르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3절)

- ㉠** (1) 에브라임은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2) 여기에서 '더러운 것'이란 첫째, 사람이 먹기에 부적당하게 썩거나 부패한 음식을 가리키며 둘째,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지정된 음식을 가리킨다(삿13:14).
 (3) 따라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장차 앗수르로 끌려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을 나타낸다.
 (4) 이 같은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와 배려 아래서 벗어나는, 즉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6. **㉠** 앗수르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의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 전제(奠祭)를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제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제물도 거상(居喪)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다 더럽혀질 것이다.
 (2) 여기서 '전제'란 술을 붓는 제사 의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상번제(출29:38-41; 민28:3-8)에는 소제와 함께 드려야 했고 번제와 화목제 때에도 같이 드리는 제사 의식이었다(민15:3, 10).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앗수르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고 공식적인 제사도 없어질 것을 의미한다(참조, 3:4).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제물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낸다.
 (4) 왜냐하면 그들의 제물이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 당시 사람이 죽은 후 그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7일간 부정하였으며 그들이 만진 식물도 부정하여 그 식물을 먹는 자는 더럽혀지며 제단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민19:11-22; 신26:14; 학2:13).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예물이나 식물을 절대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미6:6-8).

7. **㉠** 호세아는 앗수르의 침략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6절)

- ㉠** (1) 호세아는 그들이 멸망을 피해 달아나도 애굽이 그들을 모으며 높은 그들을 장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2) 여기서 '모으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테갑첸>은 '시체를 모으다'라는 뜻이다. 또한 '높'은 멤피스(Memphis)라고도 불리는 북애굽의 고대 수도로서 우상의 본거지였다.
 (3) 따라서 본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피난한 애굽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지 못하고 모두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망상하는 자들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곳에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10:8).

8. **㉠**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라고 권고하였는가? (7절)

- ㉠** (1)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알라고 권고하였다.
 (2) 즉 이것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한 것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참선지자들의 경고를 하찮게 여긴 것을 깨달으라고 권고한 것이다.
 (3)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요, 미친 자라고 비방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죄악을 고집하며 진리에 대해 미움을 품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외친 참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치킨커녕 그 시대의 현자들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리라고 선언하였다.

9. **㉠**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라고 말하였는가? (9절)

- ㉠** (1)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패괴(悖乖)한지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삿19:14)의 비류(匪類)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사건을 가리킨다(삿19:22-30).
- (3)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 두시는 것 같았지만(삿20:21, 25) 결국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패배시키게 하셨다. 그 일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전멸되고 600명만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삿20:35-48).
- (4) 이와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B. C. 793-753)의 통치하에 잠깐 변역을 누리는 듯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로 인해 이스라엘도 기브아 시대의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경고하였다.
- (5)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실정도 기브아 시대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됨을 깨닫고 올바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더욱 잘 감당하여야 한다(마5:13-16).

10. **㉠**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을 경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셨지만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쳐 자기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더러워졌던 사건을 언급하셨다.
- (2) 여기에서 '옛적에'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가리킨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는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특별한 기쁨을 맛보는 존재로 세우셨으며 이스라엘과의 친교는 '무화과의 첫 열매' (렘24:2)처럼 순결하고 기쁜 사귄이었다 (참조, 2:2, 3).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바알브올에서 자연 숭배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행위를 했다(민23:28; 25:18; 31:16).
- (4) 그런데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이 이와 똑같이 부패하였고 하나님께 배은 망덕한 일들을 행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언급하시므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 주셨던 것이다.

11. **㉠**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조와 같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결과로 에브라임의 영광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영광을 새같이 날아가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에브라임'이란 '열매가 많다' (fruitfulness)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한다. 따라서 에브라임의 영광을 새같이 날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 (3)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점진적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히 행하며 우상을 숭배한다면 먼저 그들의 자녀를 태어나자마자 죽이실 것이고 그래도 회개치 않을 경우 그들의 자녀를 산모의 뱃속에서 죽이시며 마지막으로

임태되기도 전에 죽이실 것이다(16절).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설령 살아 남은 자들이 있어서 양육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와 같은 자손에 대한 멸망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태, 즉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 권력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또한 점점 거두어지게 되고 결국은 저주와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에 그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창 24:35; 출 23:25).

12. **㉠**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브라임은 그들의 자식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낼 것인가? (13절)

- ㉠** (1)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이끌어 낼 것이다.
- (2) 여기에서 '두로'는 어린 나무를 가리킨다. 그리고 '심긴'이란 히브리어의 어근이 (사탄)로서 박토에서 아름다운 곳, 즉 옥토나 기름진 초장으로 옮겨 심은 것을 뜻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옥토에 심기운 어린 나무와 같이 당신의 모든 축복을 내려 주시며 보호하셨지만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국력을 뽐내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의한 그들을 앗수르로 하여금 치게 만드신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식들 곧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결국은 앗수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외의 것, 즉 자신의 재능이나 권력 등과 같은 것의 덕택으로 돌린다면 결국 그와 같은 행위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마저도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3. **㉠** 호세아는 에브라임의 자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는가? (14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께 배지 못하는 태(胎)와 젖 없는 유방을 달라고 간구하였다.
- (2) 이와 같은 호세아의 간구는 아무도 에브라임에서 태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환난의 날에 어린아이를 가진 여인들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며 또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통곡하는 슬픔이 그들이 받을 재앙위에 더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 (3) 한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니었다(시 127:3-5).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다(참조, 삼상 1:6; 삼하 6:20-2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하나님께 당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던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일을 특별한 축복으로 내려 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예표라 할 수 있다.
- (5) 우리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회개치 않고 불의한 일을 계속한 결과 참혹하게 패망당할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신 앞에 진실되고 올바른 삶을 산다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셨다(눅 21:15-19).

14. **㉠**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행한 이스라엘의 악과 방백들의 패역한 행위의 결과로 그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

섰다.

- (2) 여기에서 '당신의 집'이란 택한 백성의 땅 곧 가나안을 가리킴과 동시에 기업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특권을 빼앗으시겠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고는 첫째,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은 과거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생명과 새 출발을 서약하였지만 그 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참조, 4장 ④ 4).
- (4) 둘째, 하나님께서 방백들의 패역한 행위를 미워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방백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였고 도적과 착하며 뇌물과 사례물을 사랑하였다(참조, 사 1:23).
- (5) 우리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언제나 인간에게 열려 있지만 그 문이 닫힐 때는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인간 편에서 그 사랑을 거부하고 패역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 닫히게 됨을 알 수 있다(참조, 계 3:20).

15.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엄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에 비유하셨다.
- (2)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전멸시키겠다는 말이다.

16. ㉠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결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였는가? (17절)

- ㉠ (1) 호세아는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니 저희가 결국 가운데 유리(流離)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유리하는 자'란 말의 히브리어 어근은 <나다드>인데 이 말은 '뿔뿔이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호세아의 말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일부는 포로로, 일부는 피난의 목적을 가지고 열국으로 흩어질 것을 가리킨다.
- (3) 훗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열방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이 같은 호세아의 예언이 분명히 실현되었음을 뒷받침해 준다(사 11:11; 렘 16:15; 숙 10:10).
- (4) 한편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라고 언급한 반면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박탈당할 것이다(참조, 겔 18:25-32).

본장의 요절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같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늪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쟁쟁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6절)



제 10 장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단락구분 1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 2-8 우상 숭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 9-11 불순종과 범죄한 이스라엘이 받을 형벌 / 12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 13-15 세상 권력을 의지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2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3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4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돌은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5 사마리아 거민이 벤아벤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6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렐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7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8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켈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9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 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

10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11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매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흙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라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훼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훼파한 것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숴졌도다

15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1. Q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 A (1)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아직까지 용서의 문이 닫혀 있지 않음을 밝혀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불경건과 불의를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의의 열매를 비처럼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용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대가로 그들의 왕이 물 위에 거품처럼 멸망하고 머지 않아 앗수르에 의해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잔인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의 위협과 동시에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용서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B. C. 722년 앗수르에 의해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협은 단지 협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벧후 3:9)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겔 18:23).

2. **㉠**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일컬었는가? (1절)

- ㉠** (1)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일컬었다(시 80:8-11).
 (2) 여기에서 '열매맺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예쉬웨>는 열매를 맺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것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와 같은 호세아의 비유는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3)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하여져서 태평 성대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것을 교만하게 자기들의 공로와 우상의 덕택으로 돌린 행위를 가리킨다.
 (4) 그러므로 호세아의 비유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열매 곧 그들의 재물과 권력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빼앗기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공로로 돌린다면 그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실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계 2:5).

3. **㉠**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강해질수록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1절)

- ㉠** (1) 그들은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었으며 그 땅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주상(柱像)을 아름답게 하였다.
 (2)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풍성해짐에 따라 제단을 더 많이 쌓고 주상을 더 많이 만들어 받은 은혜를 감사했다.
 (3)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비록 많은 제단들을 쌓고 풍성한 열매로써 드리는 제사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의 제사가 아닌 단지 형식적인 것이었다.
 (4)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상들을 만들어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들을 숭배하였다.
 (5)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큰 모욕이며 그의 인자하심을 남용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4. **㉠**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면 해질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2) 즉 이스라엘이 '두 마음' 곧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헌신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행동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는 하나님의 명령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신 5:7-9:6:14)을 어긴 것이었다.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값대로(신 6:15)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들의 주상을 헐으실 것을 선언하셨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계 3:15, 16).

5. **㉠**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3절)

- ㉠** (1) 그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라고 말할 것이다.

- (2)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말은 그들이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한탄하는 절망의 탄식이다.
- (3)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 심판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심판받는 이유는 깨달았으면서도 진실로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5) 오늘날 불신자들도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암 4:6; 학 2:17).

6. **㉠** 호세아는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4절)

- ㉠** (1)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을 ‘밭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茵陳)’ 과 같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인진’ 이란 독초의 일종으로서 그 좁은 치명적인 독약이다. 그런데 이 같은 독초가 산 속이나 황무지에 난 것이 아니라 잘 갈아 놓은 밭에 났다.
- (3)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행위를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독초와 같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치명적인 심판을 이스라엘이 받게 될 이유는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앗수르나 애굽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본절을 통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독초와 같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요 5:29).

7. **㉠** 사마리아 거민들이 두려워하고 슬피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벧아웬에 있는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인해 사마리아 거민들은 슬피하며 두려워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죄악의 집’ 이라는 뜻을 지닌 ‘벧아웬’ 의 원래의 지명은 ‘하나님의 집’ 이라는 뜻을 지닌 ‘벧엘’ 이다. 선지자가 벧엘을 벧아웬으로 언급한 것은 벧엘이 본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로운 곳(창 28:19)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길갈과 더불어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벧아웬의 금송아지 우상이 자기들을 대적으로부터 전혀 구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인해 슬피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우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의지하고 믿을 만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해야 한다(잠 11:28; 16:20; 29:25).

8. **㉠** 벧아웬의 금송아지 우상은 누구에게 바쳐질 것인가? (6절)

- ㉠** (1) 벧아웬의 금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져 예물로 야렙 왕에게 바쳐질 것이다.
- (2) 여기서 ‘야렙 왕’ 이란 ‘앗수르 왕’ 을 가리키는 말로 ‘전쟁의 왕’, ‘강한 왕’ 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 (3)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앗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들과 함께 노

획품으로 혹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바쳐질 것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벤아웬의 금송아지 우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숭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의 칼로 제거하실 것이다(8절).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성도라면 마땅히 생활 가운데 멀리고 제거해야 될 그런 불의한 부분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할 경우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신다.

9. **㉠** 이스라엘은 벤아웬의 금송아지가 앗수르에 옮겨짐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6절)

- ㉠** (1)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計議)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계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차>는 '계획하다', '설계하다', '도모하다', '꾸미다'라는 뜻을 지녔다.
- (3) 이것은 여로보암 1세(B. C. 931-910)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후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벨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사건을 가리킨다(왕상 12:25-33).
- (4)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우상으로 나라를 지키려 한 어리석은 행위로서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곧 앗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릇된 생각들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행할 경우, 처음에는 번성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패망하게 되고 그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참조, 시 1:4-6).

10. **㉠**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마리아 왕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인가?(7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왕을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거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체프>는 '썩어진 가지', '나무 조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 위에 거품'이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다가 결국은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왕들의 권세와 영광 그리고 생명까지도 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 (4)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의 통치자로서 벤아웬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숭배를 정책적으로 권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 (5) 우리는 본질을 통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과 또한 아무리 세상의 권능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들을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거품처럼 허무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대하 21:1-17).

11. **㉠** 아웬의 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8절)

- ㉠** (1)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敗壞)되어 가시와 질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다.
- (2) 여기서 '아웬'은 벤아웬의 준말로 원지명은 벨엘이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세(B. C. 931-910)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창건할 당시 정치적인 목적으로 벨엘의 산당을 짓고 그 속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다(왕상 12:25-33).

- (3) 그런데 본질의 산당은 복수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벨엘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당들을 세웠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 속에 있는 금송아지와 바알 등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끄는 죄악의 근원인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하시어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지만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태만이 행하면서 세상의 철학과 방법을 도입하여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28:18-20; 고후 13:1-10; 엡 4:11-15; 담후 2:1, 2).

12. **㉠** 하나님의 심판으로 제단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탄식할 것인가? (8절)

- ㉠** (1) 그때에 이스라엘은 산더러 자기들을 가리우라 할 것이며 작은 산더러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탄식할 것이다.
- (2) 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던지 그 심판의 고통은 겪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탄식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원수들의 학대를 못 이겨 죽기를 원하는 그들의 처참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 (4)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형편은 비단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최후의 심판의 날에 모든 악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이다(눅 23:30; 계 6:16).
 - (5)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빛의 자녀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당신을 믿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요 5:29).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기브아 시대'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비류(匪類)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사건을 가리킨다(삿 19:22-30). 그 당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3차에 걸쳐서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을 남긴 채 전멸하고 말았다(삿 20:1-21:25).
 - (3) 그런데 그와 같은 기브아 시대에 자행된 도덕적 타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에 그대로 재현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 기브아 시대와 같은 흉악한 심판을 받고 있지 않았다.
 - (4)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 징계하기 위함이었다(10절).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언제인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 즉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첫째 견해는 이스라엘이 벨엘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둔 죄를 가리킨다는 것과, 둘째 견해는 렘 2:13에 기록된 두 가지 죄, 즉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우물을 판 죄를 가리킨다는 것과, 셋째 견해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윗 왕조를 배반한 행위(3:5)를 가리킨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간과(看過)하신 것 같았지만 일일이다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날 그들을 심판하신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기브아에서 행한 불의한 일을 응징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쳤듯이 이스라엘을 만민 곧 앗수르를 통해서 치게·만드시고 앗수르의 노예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간파하신 것 같았지만 죄인들을 징계하실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릇된 길로 간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나 가벼운 징계를 받을 때 돌이키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달아야 한다(신 30:1-3; 욥 1:1-17; 렘 7:3-7).

15. **㉠**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아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길들인 암소에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았으며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들임을 나타낸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온갖 축복을 누렸는데 이것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되었다. 즉 소에게 곡식을 밟게 하는 것은 타작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 일은 소에게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굴레를 씌우지 않으므로 마당을 돌며 마음대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 (4)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하였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증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참조, 신 32:14-18).

16. **㉠**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받을 징계를 어떻게 비유하였는가? (11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아름다운 목에 멩예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고 비유하였다.
- (2) 이처럼 소에 멩예를 메우는 것은 더 힘든 밭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예속’과 ‘매임’을 상징한다.
- (3)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영과 영화를 교만하게 자랑하며 자기 안일과 쾌락에 방종하는 이스라엘을 앗수르로 하여금 침략당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앗수르로 끌려가서 마침내 끈고한 종의 위치에서 고생하게 만드실 것을 나타낸다.
- (4)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는 야곱, 즉 북방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에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 이와 같은 호세아의 예견대로 북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앗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B. 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각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왕하 25:7, 8).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호와 인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성도가 이러한 은총을 망각한 채 교만히 죄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신다(신 8:5; 요 15:2; 계 3:19).

17. **㉠**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권고하였는가? (12절)

- ㉠** (1)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공활을 거두라고 권고하였다.
- (2) 여기에서 ‘공활을 거두라’는 말은 ‘공활을 따라서 거두라’는 뜻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보상으로 주신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은 호세아의 권고는 백성들에게 참회의 기도와 개혁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자비가 주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 (4) 따라서 호세아는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심는 대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눅 6:38).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조건이 인간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의' 라는 사실이다(참조, 시 119:137).

18. ㉠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이 어떠한 때라고 권고하였는가? (12절)

- ㉠ (1)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권고하였다.
- (2) 여기에서 '찾는다'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다라쉬>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찾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기도를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한다.
- (3) 또한 '찾을 때'의 '때'는 히브리어 <에트>로서 '제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이제라도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참조, 사 55:6).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징계하지 않고 끝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대가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 (5)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여 끝까지 죄악된 행위에서 완고하게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을 그치시고 준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한다(겔 11:20, 21).

19. ㉠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12절)

- ㉠ (1)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起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비처럼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을 뜻하며 '기경하라'는 것은 그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쟁기로 파헤쳐 감으로써 말씀을 뿌리는 데 알맞은 새 땅으로 만들라는 뜻이다(렘 4:3).
- (3)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가득 찬 불경건과 불의를 그들의 마음 속에서 씻어 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의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다.
- (4) 호세아는 이와 같이 밭을 갈고 의의 씨앗으로 파종이 끝난 마음의 밭에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비처럼 열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 그리고 자비를 받는 길이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잠 3:3-5).

20. ㉠ 호세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먹었다고 하였는가? (13절)

- ㉠ (1) 호세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했다.
- (2) 여기에서 '거짓 열매'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리 카하쉬>는 '실망의 열매', '배신의 열매'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불경건하게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불의의 열매, 즉 거짓과 배신과 실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3)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며 그들의 국가의 권력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헛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배신과 실망을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신 8:17; 렘 50:30; 단 4:30-33).

21. ㉠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열매를 먹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당하리라고 예언하였는가? (14절)

- ㉠ (1) 호세아는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훼파(毀破)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벤아벨을 훼파한 것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여기에서 호세아는 '살만'과 '벤아벨'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살만'이 누구를 가리키며 '벤아벨'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관한 정설이 없다. 어쨌든 호세아가 당시에 잘 알려져 있던 살육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 (3) 이처럼 살만이 벤아벨을 훼파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의 힘을 의지한 대가로(13절) 머지 않아 앗수르에 의해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는 잔인한 살육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의지했던 산성 곧 요새화된 견고한 도성들도 다 파괴될 것이다.

22. ㉠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하였는가? (15절)

- ㉠ (1) 호세아는 그 이유를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벤엘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하였다.
- (2)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벤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패역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3) 한편 호세아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가 보다더 새롭고 번영스러운 날이 밝을 것으로 기대하는 새벽에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그들과 왕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였다.
- (4) 이와 같이 호세아는 자신들의 힘을 맹목적으로 과시하며 아무런 역경도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한 백성들을, 조용하면서 살육이 재빠르게 덮쳐서 그들을 패망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 (5) 본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위로와 의지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시 51:3; 고후 1:3, 4).

본장의 요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금품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起耕)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2절).



제 11 장 남은 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꾸짖다 / 5-7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 / 8-11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 12 이스라엘과 유다의 형편

1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2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3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곁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4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5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 되리라

6 같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7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발 듯하도다

9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0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어 오되

11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어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꾀술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하게 남아 있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평안을 약속하신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와 인도 아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통해 마땅히 지켜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 이스라엘을 머지않아 앗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극심한 징계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남아 있는 자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당하였던 성읍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파멸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셨다.
- (4)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진실되게 남아 있는 자들을 결코 패역한 자들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위로와 격려를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사건을 언급하셨다.
- (2) 여기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사건'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

건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손을 펼쳐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셨다.

- (3) 이와 같은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조와 맺으신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며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창 13:15; 출 32:13; 신 7:7, 8).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감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오만 불손하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 망덕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비열함을 보여 주셨다.
 - (5) 한편 이와 같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애굽 사건(출 12:51)과 그리스도의 출애굽에 대한 예언적 사실(마 2:19, 20)을 예표한다. 즉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불러내신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를 그로 말미암아 영적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실 것을 예표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면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 내야 한다(참조, 5:29).
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2절)
- ㉡** (1)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로 무수히 많은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과 당신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행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르침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절하였다(왕하 17:13, 14).
- (3)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며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 곧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숭배했다(출 20:4; 레 26:1; 왕하 17:15-17).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패역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 버리고 마음속에 세상의 향락과 물질적인 축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을 좇으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결국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참조, 골 3:1-6).
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당신의 팔로 안으셨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음을 한탄하셨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나 유모 혹은 교사로서의 사랑과 인내로써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 팔을 붙잡고 인도하셨다(신 32:9-14).
- (3)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출 13:21, 22)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셨으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과 계명을 전해 주심으로(신 4:44-5:33)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가르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으며 그들의 의원이 되어서 선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배은 망덕한 죄를 자행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탄식하셨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을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불

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시 7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치 못하며 구원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사람의 줄'이란 '짐승을 끄는 줄'과 반대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나 황소나 나귀처럼 대우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대우하시며 오직 사랑의 줄로 이끄셨음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멍에는 매기 싫어하면서도 곡식 밟는 일이나 좋아하는 암소같이(10:11) 사악하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자함으로 인도하셨음(렘 31:3)을 보여 준다.
 (4)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버지로서의 은혜를 독특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표시였으며 따라서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할 수 없음을 증명한다.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며 사랑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사 59:1-3).

6. **㉠** 하나님께서는 어린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구부려 그들을 먹여 주었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출 12:51)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출 16:13, 14)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준수한다면 당신이 예비한 모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신 7:12-16).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여러 가지 사실을 무시하였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죄악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불러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16:8; 렘 23:23; 행 17:27).

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 이유는 앗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애굽으로 구출해 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보다 더 가혹한 종살이 상태로 몰아넣으실 것을 가리킨다.
 (3)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보다도 훨씬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국과의 모든 통신과 귀국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땅인 앗수르로 끌려가게 되어 애굽에서 보다는 더 가혹한 종살이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처음보다도 악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

들을 통하여 회개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싫어한 까닭으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 (5)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세상의 유혹과 재물을 좇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렘 17:13).

8. **㉠** 이스라엘이 칼로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칼로 공격을 받고 그들의 빗장이 깨어져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획 때문이었다.
- (2) 즉 앗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전쟁과 살륙의 참상을 당하며 적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문의 빗장마저 깨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이었다(5절).
- (3)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보며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앗수르, 애굽과 거짓 맹세를 하면서(10:4)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앗수르 왕 살만에셀(Shalmaneser, B.C. 727-722)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왕하 17:3-6)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計議)를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10:6, 7).
- (5) 이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계획대로 행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다(참조, 사 31:1; 47:10; 미 7:5).

9.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권고하셨지만 그 권고에 대해 어떻게 행하였는가? (7절)

- ㉠** (1) 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으며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 (2) 여기에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 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에 몰두하고 고집스럽게 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지자가 아무리 고함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해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 즉 백성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악한 행위를 고집하는 전혀 개선될 기미나 회개할 징조를 보이지 않았다.
- (4)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다 영혼의 눈이 먼 채 한 가지 악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범하기로 단결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들추어내심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공연히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반드시 그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나 삶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잘못된 부분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해결책이다(참조, 딤후 2:25).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사해 내륙에 위치한 도시로서(참조, 창 14:2)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향과 불로 멸망된 도시들이다(신 29:23).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철저히 파멸을 당하며 아무것도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없도록 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신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멸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시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 (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셨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에 대해 노하시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멸당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사 48:9).

1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긍휼을 온전히 불붙는 듯하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긍휼’이란 히브리어로(니후마)로서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은 70인역(LXX)과 KJV에서 ‘후회’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 (3) 이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뜻이다(참조, 신 32:36).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와하지 않고 내놓으시게 했다(사 53: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재앙과 근심과 슬픔을 주시며 그때에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잠 1:24-28).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미 7:18, 19) 끝까지 완고하게 죄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잠 1:29-32).

12. **㉠** 하나님께서는 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는가? (9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 (2) 즉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실수로 진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실수를 하시거나 자신의 목적을 변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참조, 민 23:19; 사 55:8; 말 3:6).
- (3) 이처럼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시키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중치하시지 않으신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는 극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말씀이다.

13. **㉠**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로부터 나올 것인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으로부터 떨어져 오되 애굽으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어져 올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은 새끼 사자를 부르는 어미 사자로 묘사되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은 자, 남은 자들은 그 부르짖음에 복종을 하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푸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유배의 땅 곧 지중해 연안 지대나 섬들을 상징하는 서편에서부터 그리고 남

쪽 지대를 대표하는 애굽과 동쪽 지방을 대표하는 앗수르로부터 그들의 기업인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미 7:12).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당시 유다의 두 지파와 함께 돌아온 일부 이스라엘인에게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참조, 스 2:28, 70) 영적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에서는 보다 완전하게 성취되었다(참조, 롬 9:8; 11:5, 7).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회개치 않으며 계속 패역한 행위를 계속한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요 10:1-18).

1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에 동참하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탄식하였는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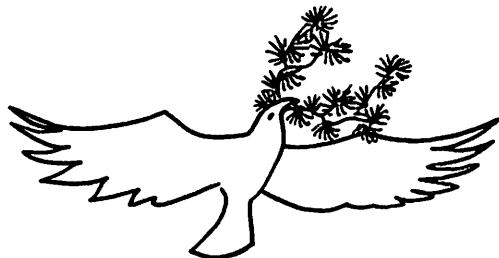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궤홀로 나를 에워쌌다' 라고 말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신상을 산당에 만들고(참조, 8:11; 10:1) 금송아지를 벨렐과 단에 만들어(참조, 8:5)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백성들을 속여서 숭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회개하고 헛된 말을 하며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의 행동(10:4)에 대해 한탄하였다.

1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한탄하시면서 유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定)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개역 성경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직역하면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 또는 지극히 거룩하신 자에게 신실하다'이다. KJV나 RSV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3) 따라서 히브리 원문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11절).



제 12 장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한 책망

단락구분 1-2 에브라임과 유다의 행위를 책망하다 / 3-6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 7-10 에브라임의 불의를 책망하다 / 11-14 거짓된 제사와 우상 숭배를 꾸짖다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학을 더하며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2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용하시리라

3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4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벨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נם 칭호니라

6 그러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좇아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7 저는 상고여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8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

니와

9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 일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10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11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나 저회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12 옛적에 야곱이 아람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3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14 에브라임이 격노케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1. ㉠ 본장에 나타난 내용상 특징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인용하여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역한 상태를 조명하셨다.
- (2) 당시 그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교만히 자랑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힘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양 행하였고 자신들에게 불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곱의 출생 사건을 통해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야곱이 벨엘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셨다.
- (4) 이 같은 언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우상을 섬겨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행위를 꾸짖으셨다.
- (5)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경력이나 가문,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2. ㉠ 패역한 에브라임은 무엇을 먹었는가? (1절)

- ㉠ (1)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학을 더하였다.
- (2) 여기서 '바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루아흐>는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뜻으로서 애굽과 앗수르를 의지하는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을 암시한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공물로 바치므로 만사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여긴 것과 다름없었다.
- (4)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앗수르나 애굽으로 원조를 청하려 갈 때는 항상 자기 동족인 유다 왕국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갔다.
- (5)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팔레스틴의 동풍을 따라가는, 즉 헛된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행위였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와 모든 것을 마르게 하며 생물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열풍이기 때문이다(참조, 욥 27:21; 시 48:7; 은 4:8).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고후 6:14).

3. **㉠ 호세아는 유다와 야굽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가? (2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정변하시고 야굽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所爲)대로 보용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 (2) 여기에서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며 '야굽'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킨다.
- (3)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이 타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당신에 대한 신앙과 정직과 의가 남아 있는 남유다에 대해서도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하물며 그들보다 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호세아가 '소행'과 '소위'라는 말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행위를 꾸짖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이같이 완고한 이스라엘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5)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본질은 악인들, 즉 복음을 믿지 않는 패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4. **㉠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을 꾸짖기 위해 야굽이 모태(母胎)에서 행한 어떤 일을 언급하였는가? (3절)**

- ㉠** (1) 호세아는 야굽이 태(胎)에서 나올 때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건을 언급하였다(창 25:26).
- (2) 이와 같은 사건은 야굽이 장자권과 그 축복을 간절히 추구한 행위였으며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들의 출생하기 전에 야굽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다(말 1:2; 롬 9:13).
- (3) 하나님께서 이같이 야굽을 사랑하심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롬 9:10, 11).
- (4) 따라서 호세아가 야굽의 출생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야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 (5) 그러면서 호세아는 자기들이 야굽의 자손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들의 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 교만히 행하며 불경건한 행위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었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인품과 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사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갈6:14).

5. **㉠ 호세아는 장년(長年)에 야곱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말하였는가? (3, 4절)**

- ㉠** (1) 호세아는 야곱이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던 사건을 언급하였다.
- (2) 그 당시 야곱은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오는 형 에서를 두려워해 그의 소유를 세 때로 나누어 먼저 압복 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압복 나루에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었다(창 32:1-28).
- (3) 이러한 야곱의 씨름은 고민하여 울부짖는 기도와의 연관이 된다. 그가 드린 기도는 이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여 그의 도움을 구한 기도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자기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확신한 기도였다.
- (4) 이와 같이 호세아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다.

6. **㉠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에서 만났다고 하였는가? (4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벧엘에서 만나셨다고 하였다.
- (2) 즉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지쳐서 잠이든 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킨다. 야곱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지명 '루스'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지닌 '벧엘'로 개칭하였다.
- (3)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였던(창 28:17) 벧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므로 북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타락시켜 버렸다(왕상 12:28-33).
- (4) 그러므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벧엘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스러운 곳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꾸짖었다.

7. **㉠ 호세아는 하나님이 벧엘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하였는가? (4, 5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이 벧엘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갈 때(창 28:10-19) 그리고 밧단아람에서 돌아올 때(창 35:9-15), 벧엘에서 그를 만나셨던 사건을 가리킨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다(참조, 창 28:16, 17).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벧엘에서 직접 야곱을 만나셔서 그와의 언약을 쇄신하시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창 28:14), '내가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창 35:12)는 약속을 하셨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은 야곱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념하여 벧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장소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곳을 벧아웬, 즉 죄악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왕상 12:28-30).
- (6)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벧엘에게 야곱을 통해 심히 크고도 귀중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무시함으로써 그 혜택을 상실한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야곱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꾸짖었다.

8. **㉠ 호세아는 벧엘에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했는가? (5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선포하였다.
- (2) 여기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기념 칭호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 (출3:14), ‘이스라엘의 구원자’ (출6:6)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자존자 (自存者)의 능력을 말한다.
- (3) 즉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과거와(시 135:13)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히 13:8)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한 불변하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자로서 계약을 맺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뜻이다.
- (4)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천지의 모든 피조물을 마음대로 부리시고 명령하시며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호세아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상과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수치스러운 행위임을 꾸짖는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라는 기념 칭호로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기념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행위임을 잊지 말자(약 3:13-18).

9. ⓐ 호세아는 그들의 조상 야곱에 관해 언급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촉구하였는가? (6절)

- Ⓐ (1)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였다.
- (2) 여기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호세아가 이 말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유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 (3) 더 나아가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 두 가지 증거를 요구하였다. 첫째는 도덕적인 변화로서 이웃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모든 상처, 사기, 강도질 및 온갖 악행을 삼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상 숭배를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구원을 내맡기는 것이다.
- (4)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은 호세아의 권고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패역한 행위를 일삼았다(7, 8절).
- (5) 본질은 참회개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릇된 행위를 그만두고 생활 가운데 이웃에 대한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한다(마 3:8; 눅 19:8; 행 26:20).

10. ⓐ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장사를 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상고(商賈)와 같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詐取)하기를 좋아하였다.
- (2) 여기에서 ‘상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케나안)은 가나안에서 살던 일꾼 족속들 가운데 하나인 ‘가나안 족속’를 가리킨다(신 7:1; 수 3:10). 이들은 베니게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로 상업(商賈)을 하여 먹고 살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남을 속이고 강탈하였다.
- (3) 그런데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패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 (4) 즉 그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웃들을 속이고 때로는 공공연하게 완력을 써서 이웃들에게 강탈과 착취를 자행했다.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시선만을 의식했을 뿐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직과 공의로 행해야 한다(행 5:1-9; 고전 1:25).

11. **㉠**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재물을 모은 후 자기 자신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하였다.
- (2) 당시 이스라엘은 예로보암 2세(B. C. 793-753)의 통치하에서 솔로몬 이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늘려 가고 있었다.
- (3)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와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착각하였고 또한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4)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는 당장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관용을 악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깨끗한 것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면밀히 반성해서 우리의 악을 털어 버려야 한다.
- (5) 또한 오늘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켜 올바르게 살지 않는 한 그들의 재물이 축적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양 또한 증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약 5:3).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로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명절일에 하던 것처럼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명절일’이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레 23:43)을 가리키는데 그때에는 모든 백성이 7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였다(레 23:42).
- (3)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선조가 장막에 거하면서 40년간 방황하던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장막 시절로 환원시키시며 가난하고 비천하며 황량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그들이 비천한 처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속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다시 당신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자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겪던 어려움과 고통에 다시 빠지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건져 내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재확인시키신다(시 66:10-12).

13.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상을 많이 보이셨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경책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도우셨고 비유와 환상으로 그 뜻을 알리셨다(사 1:1; 욥 1:1; 나 1:1).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배척한 죄악에 대해 결코 모르고 그렇게 행했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4) 그러한 사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그릇된 행위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하였다(참조, ㉠ 10).
- (5)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잘못된 길로 갈 경우 경책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 사회에서 참성도를 만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민감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

14. **㉠** 호세아는 길르앗과 길갈의 패역함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11절)

- ㉠** (1) 호세아는 길르앗이 불의하고 거짓되었으며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을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같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 (2) 원래 '길르앗'은 요단 동편 지역, 즉 아르논과 압복 강 사이에 있는 고원 지대로서(삿 20:1) 질푸른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목장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길갈'은 요단 서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이곳에 도착하여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열 두 기념석을 세웠던 곳이었다(수 4:19-24).
- (3)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을 행악자의 고을로 만들고(6:8) 길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예배의 길을 떠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물을 드리며 우상을 숭배하였다.
- (4) 이와 같이 많은 제단을 세우고 무수한 제물을 계속 바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언뜻 최상의 칭송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참 믿음과 순종이 수반되지 않은 형식적이고 그릇된 예배에 불과했다(참조, 호 8:11).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단을 돌 무더기와 같이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하셨다. 이러한 제단의 황폐나 폐허는 우상 숭배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라의 붕괴와 백성의 추방을 의미한다.
- (6) 오늘날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세워진 교회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예배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목적, 즉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써 교회를 운영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다(6:6; 사 1:11).

15. **㉠**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언급하였는가? (12, 13절)

- ㉠** (1)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며 보호하셨던 사건을 언급하였다.
- (2) 이와 같은 호세아의 언급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사건이 결코 역사의 우연한 사건이거나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임을 나타낸다.
- (3) 또한 그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아람 들로 도망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라반을 섬기고 양을 쳤던 사건(창 29:20, 28)을 언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존경받을 만한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음을 보여 주었다.
-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교만히 자랑하면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능멸한 행위가 얼마나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것인지 설명해 준다.
-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목적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헌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요 15:6; 17:22; 고전 6:20).

1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에브라임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들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그 피'란 '피흘린 죄'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인 몰렉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 행위를 가리킨다(왕하 17:17).

- (3) 또한 '그들의 수치'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돌린 수치를 가리킨다.
- (4) 에브라임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행위들이 불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점점 그 도를 더하였다.
- (5)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패역한 에브라임을 죄없다 아니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삼상 2:30).

화보자료

천사와 겨루는 야곱. 화가 들라크르와의 작품으로서 창 32:24-30의 말씀을 제재화(題材化)한 것이다.



본장에서 호세아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던 야곱의 개인사(個人史)를 언급하고 있는 까닭(3,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특별한 관계를 기억케 하려는데 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와 언약하신 것(창 32:28)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것이 호세아의 목적이었다(6절).

제 13 장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단락구분 1-3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 4 잠된 구원자 / 5-8 교만으로 인한 형벌 / 9-14 악한 대적자의 결과 / 15 하나님의 심판 / 16 사마리아 멸망의 예언

1 에브라임이 말을 발하면 사람이 떨어졌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므로 망하였거늘

2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어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4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므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6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7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엉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9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

와 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10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보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11 내가 분노하므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12 에브라임의 불의가 범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13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라도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14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15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와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엮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쉬뜨리우며 그 아이 뱀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다.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 들짐승 그리고 동풍으로 묘사되었는데 이 같은 표현들은 잔인함과 철저한 파괴 등을 암시한다.

(3) 이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게도 바알과 금송아지와 같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4) 그런데 이제까지의 심판들이 부분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면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은 전체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심각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현대적 의미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 호세아는 과거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였는가? (1절)

- Ⓐ (1) 호세아는 에브라임이 말을 발하면 사람이 떨었고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고 하였다.
- (2) 한편 KJV 에서는 본절을 ‘에브라임이 떨면서 말할 동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도다’ 라고 번역하였다.
- (3) 이것은 에브라임이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섬길 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고 매우 괄목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 (4) 실제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막내 아들이며 므낫세의 동생이었지만(창 41:51, 52)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를 축복하시므로(창 48:13-22) 그 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등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참조, 사 7:2).
- (5)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가므로 인하여 망하였다.

3. ⓐ 에브라임이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에브라임은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므로 망하였다.
- (2) 즉 이 말은 그들이 참되고 합법적인 예배를 저버리며 우상을 섬기는 시간부터 그들이 망했다는 뜻이다.
- (3) 여기에서 ‘망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야모트>의 어근 <무트>는 ‘죽었다’라는 뜻으로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창 2:17; 잠 9:18; 딤편 5:6).
- (4) 이같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벤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왕상 12:28; 30) 그 후 아합 때에는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광적으로 섬김으로써(왕상 16:31, 32)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개인에게든 단체에게든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살후 1:8, 9).

4. ⓐ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2절)

- Ⓐ (1) 그들은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 (2) 여기에서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키테브남>은 ‘그들 자신의 이해에 따라’, ‘그들 자신의 명철을 따라’, ‘자기 상상대로’ 라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의한 태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악해졌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 (4) 그들은 은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고 그들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우상을 영화롭게 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는, 즉 최대의 경의로 찬미와 애정과 충성을 표시하였다.
- (5) 이와 같은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정성을 강도질하는 것이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모든 허구적이고 타락한 예배의식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임을 알 수 있다(참조, 대상 16:29).

5. ⓐ 호세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결과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3절)

- Ⓐ (1) 호세아는 그들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아침 구름’과 ‘이슬’ (6:4)은 인생의 무상과 잠깐을 상징한다. 또한 ‘쭉정이’는 가볍고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란 처음 굴뚝에서 나갈 때는 새까맣지만 나가고 나면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마는, 즉 흩어져 없어지기 쉽고 도망하는 것을 상징한다(참조, 시 68:2; 102편; 사 51:6).

- (3) 이와 같은 비유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제아무리 번창하고 행복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상태는 순간적이지요,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 (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만족과 안전을 기대하며 번영이 확보될 것으로 믿었던 우상 숭배의 행위가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준엄한 징계의 손길을 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하고 영속적인 위안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후 1:3, 4).

6. **Q**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4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긍휼, 신뢰를 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후 시내 산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참된 경배의 대상과 구원의 보장이 오직 당신뿐이심을 밝히셨다(출 20:3-6).
- (3)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다시 여기서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참된 구원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동이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참조, **Q**8).
- (4) 한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전하였다(행 4:12).
- (5)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구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 외의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애쓰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여야 한다(참조, 요 14:6).

7. **Q**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5절)

- A** (1) 하나님께서는 광야 마른 땅에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셨다.
- (2) 여기에서 ‘광야 마른 땅’이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가기까지 방황했던 광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물과 양식이 없는 극심한 곤경의 상태를 의미한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권고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권고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친근하게 돌보아 주셨음을 의미한다.
- (4)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물과 만나와 매추라기로써 먹여 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가리킨다(신 8:15, 16; 렘 2:6, 7).
- (5) 이와 같은 광야에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무수한 혜택과 격려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결길로 간 것이 배은 망덕한 행위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6)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상의 혼란과 역경 속에서 그냥 좌초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시 27:11).

8. **Q**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이스라엘은 실컷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 (2) 한편 본절에서 ‘저희가 먹이운 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케말이탐)은 ‘기름진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을 소유한 사실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기반이 확립되자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배척하였다.
- (4) 이와 같은 그들의 교만한 태도는 자기들이 누리는 풍부와 특권이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패역한 행위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출애굽 이후 그들이 패역하게 될 일을 노래로써 들려준 예언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다(신 32:15).
- (5) 그러므로 본질의 말씀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며,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첩경임을 교훈하고 있다(시 10:4; 단 5:20).

9. **㉠**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와 주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어떤 일을 당했는가? (7-9절)

- ㉠**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므로 패망하였다.
- (2) 여기에서 ‘네가 패망하였나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쉬헬카>는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미래의 되어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법으로서 호세아가 미래의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하였다.
-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표범’과 ‘새끼 잃은 곰’과 ‘암사자’처럼 그들을 찢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예언은 이스라엘이 B.C. 722년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 백성들은 앗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며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사건을 가리킨다(왕하 17:3-6).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 떼로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들과는 필요 없는 분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길로 갈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버리시고 정계의 채찍을 드신다(시 119:21).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우시고 폐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므로 왕을 주시고 진노하시므로 폐하셨다.
- (2) 여기에서 ‘주시고’, ‘폐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텐>과 <윅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하신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임을 나타낸다.
- (3) 즉 이 말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이 209년간(B.C. 931-722)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지만 왕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피흘리는 혁명이 발생했으며 결국에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 (4)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에 대한 반역으로써 생겨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의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2:25-33).

11. **㉠**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임하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그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극심한 고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하여 받을 심판의 피로움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임하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보우>는 <보->의 미완료형으로서 현재 오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들을 간파하시고 잊어버리신 것 같

았지만 그들의 모든 불의를 봉합(封緘)하시고 모든 죄악을 저장하셨다가 (12절) 심판 날에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 (4) 따라서 본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나 사면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모든 죄악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보용하시는 분이시다(요 5:29).

1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 이유는 그가 해산의 때가 임하였는데도 산문(産門)에서 지체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해산의 때’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해산의 고통 후 태어날 아기로 인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것이며, 둘째는 산모의 힘이 약하거나 태아에게 문제가 있어서 분만할 수 없는, 즉 아기와 산모가 죽는 것이다.
- (3)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가 제시되었지만 그들이 산문을 나올 기력이 없는 아기와 같다는 뜻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갱생의 길을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를 거부하고 회개와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 문을 거부하고 완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해산의 때가 임하였는데도 산문에서 지체하는, 즉 스스로의 죽음의 구덩이를 파는 이스라엘과 같다(참조, 시 7:12; 눅 13:3).

13. **㉠**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5절)

- ㉠** (1)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많은 축복과 탁월한 위치에 있음을 가리킨다.
- (2)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동생이었고 나이가 어렸지만 그를 통해 요셉의 장자권이 계승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때문이었다(창 48:5-22).
- (3)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파멸을 확실하게 해줄 패역한 행위들만 일삼고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게 해줄 선한 일들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파멸을 당하게 되었다.
- (4) 한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적, 대표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은 곧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파멸을 의미한다.

14. **㉠** 에브라임은 동풍이 불 때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 ㉠** (1) 동풍이 불어올 때 그들은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積蓄)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 (2) 여기에서 ‘동풍’이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렘 4:11)으로서 앗수르의 공격을 상징한다. 호세아는 이 바람을 가리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아의 바람’이라고 칭하였다(참조, 시 78:26).
- (3) 따라서 머지 않아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에 밀어닥칠 앗수르의 공격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도구임을 의미한다.
- (4) 한편 이 동풍이 밀어닥치면 나무와도 같은 이스라엘에 수분을 공급하는 모든 샘들과 근원들이 마를 것이며 그들이 자랑하던 부(富)의 재원을 고갈시켜 버릴 것이다.

- (5)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제아무리 깊이 숨겼다 할지라도 이 바람은 그 가장 은밀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 중 성한 것은 하나도 없이, 파멸될 것임을 나타낸다.
- (6)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 놓고 거기에 애정을 쏟으며 위로와 만족을 얻지만 지혜로운 자는 짐과 도적이 없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고 위로와 만족을 얻는다(마 6:19, 20).

15. **㉠**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16절)

- ㉠** (1) 사마리아는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엔 여인은 배가 갈리울 것이다.
- (2) 이와 같은 결과는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지도 세력이 그 곳에 밀집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패역한 행위와 생각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 (3) 실제로 사마리아는 B. C. 723년부터 B. C. 722년까지 앗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포위되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왕하 17:5, 6).
- (4) 이와 같은 사건은 요단 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에 관해서 언급한 모세의 예언(신 28:15-68) 과 장차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당할 일을 생각하면서 앗수르의 하사엘을 보고 통곡하면서 말하였던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왕하 8:12) 된 것이다.

연구자료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강조하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자연스럽게 부부라는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를 아내로 삼으셨다고 한다(참조, 2:16, 19, 23). 그러나 이스라엘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정부(情夫)인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은유적(隱喻的)으로 나타나는데 곧 호세아의 두 자녀 이름에서이다. 호세아의 딸 이름인 '로루하마'는 그 뜻이 '사(赦)하지 않으리라'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죄를 보우하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호세아의 둘째 아들 이름인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라는 자격을 지니게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파멸이다. 그러나 이처럼 암담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정부(情夫)를 버리고 다시금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나는 네게 다시금 장가들겠다'(2:20)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호세아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려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14 장 회개와 축복에 대한 권면

단락구분 1-3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고하다 / 4-8 회개한 백성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 / 9 여호와 의 도(道)를 행하라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2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
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
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갓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
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
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4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
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

힐 것이라

6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7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
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
리라

8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
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
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와 의 도
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
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지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
(2) 즉 호세아는 패역한 백성들과 더불어 죄를 지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남
아 있는 자들에게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 그리고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던 죄악에
서 돌이켜 참된 회개와 헌신을 촉구하였다.
(3) 왜냐하면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회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패역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그들에 대한 번영과 보호, 생명을 약속하신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첫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
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둘째,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간
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는가? (1절)

- ㉠ (1) 호세아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였다.
(2) 여기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완전한 회개를 의미한다. 즉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깨달으며 과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다.
(3) 그 이유는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죄
와 저주의 짐 아래서 엎드려졌기 때문이다.
(4) 한편 본질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택받은 자들 곧 잠시 동안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악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의 참된 자녀로서 신실하게 남아 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다.

(5) 본절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며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임을 교훈한다.

3. **㉠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회개의 방법은 무엇인가? (2,3절)**

㉠ (1) 호세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였다.

(2) 여기에서 ‘말씀’이란 ①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바치는 것(참조, **㉠** 4) ②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 ③ 말을 타지 않는 것 ④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 5).

4.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떤 재물을 바칠 것인가? (2절)**

㉠ (1) 그들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바쳐야 한다.

(2) 즉 이 말씀은 형식적인 제사와 우상 숭배의 위치에서 돌이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의 기도와 헌신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다.

(3) 다시 말하면 내적인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 생활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는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지만(삼상 15:22; 요 4:23, 24) 형식적인 순종과 믿음이 없는 제사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재물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시 51:16, 17).

5. **㉠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떤 생활을 살도록 권고했는가? (3절)**

㉠ (1)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노라’고 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2) 여기에서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은 애굽에 원조를 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참조, 신 17:16; 사 31:1).

(3) 이와 같은 호세아의 권고는 그들이 패망하게 될 이유가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4) 따라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의 원인인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힘과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던 모든 행위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그것은 그들이 고아와같이 비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한다(요 8:34; 살전 5:22).

6. **㉠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주실 것인가? (4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悖逆)을 고치시고 즐거이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2) 여기에서 ‘패역’이란 불신과 부정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가리킨다. 즉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를 의미한다.

(3)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와 같은 행위를 치료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들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치료하시는 것은 사랑의 시작인 것이다.

(4) 한편 본절에서 ‘즐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느다바>는 ‘거저’ 또는 ‘똥성하게’라는

뜻을 지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실 것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넘치는 사랑으로, 또는 거저 무상으로 사랑할 것이다’란 뜻이다.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엡 2:8, 9).

7. **㉠**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무엇과 같을 것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2) 여기에서 ‘이슬’이란 팔레스틴과 같은 사막 지대에서는 생명수와도 같아서 초목에 생기를 준다. 또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슬을 모아서 먹으므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창 27:28)과 훈계(신 32:2)와 사랑(시 37:37)과 은혜(사 26:19)를 상징한다.
 (4)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때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우리의 자아를 방해하고 손해보게 하는 일같이 비추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길인 것이다(겔 18:21; 행 11:18).

8. **㉠** 이스라엘은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 (5,6절)

- ㉠** (1)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또한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2) 여기에서 ‘백합화’는 ‘풍부’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또한 ‘감람나무’는 푸른 잎을 내며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가지가 더 멀리 퍼지고 사시 사철 결실을 맺는 팔레스틴의 대표적인 나무로서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지속적이고 오래 가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52:8; 렘 11:6).
 (3) 그리고 ‘뿌리’는 ‘안정’을 나타내고 ‘가지가 퍼지는 것’은 ‘인구의 증대와 번영’을 나타낸다.
 (4) 한편 본절에서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말 가운데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과 70인역(LXX)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개역 성경에서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것은 백향목이 레바논에 관한 언급과 함께 사용되었으며(시 29:5) 백향목의 주산지가 레바논이기 때문일 것이다.
 (5) 그러므로 레바논의 향기를 반드시 백향목의 향기라고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말은 레바논의 깊이 뿌리를 박은 수풀 뿐 아니라 ‘땅의 견고한 지대’(미 6:2)의 하나로 산 자체를 의미한다.
 (6)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한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태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엡 1:7).

9. **㉠**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 (1) 이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2) 여기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이란 잠시 동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죄를 범하였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14:2-6).

10. **㉠**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7절)

- ㉠** (1) 그들은 곡식같이 소성(蘇醒)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 (2) 즉 그들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았지만 소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회복되어서 포도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레바논 산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향긋러운 포도주가 될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상태는 번영과 생명과 안정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상태가 될 것이다.
- (4) 한편 본절에서 ‘향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지크로>는 ‘기억’, ‘명성’이라는 뜻을 지녔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의 상태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영광을 얻는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단서가 붙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은 채 단지 그것을 관망하거나 다른 피난처를 찾는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시 36:7).

11. **㉠** 돌아온 에브라임은 우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8 절)

- ㉠** (1) 에브라임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할 것이다.
- (2) 이와 같은 에브라임의 말은 진지한 고백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그들의 우매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이다.
- (3)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과거 생활이 타락하고 사악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그와 동시에 더 이상 허망한 우상들과 관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개를 선언하는 것이다(참조, 3절).
- (4) 한편 여기서 ‘에브라임’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신다.

12. **㉠**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상관 없겠다는 에브라임의 고백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8 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 (2) 한편 팔레스틴에 있는 잣나무는 심히 크고 무성하여서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잣나무’에 비유하심은 참회한 백성들에게 기쁨과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선언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보호와 날개 아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뿌리가 되시고 그들은 줄기가 되어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참회의 고백을 무시하지 않고 돌아보시며 그 대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행하도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빌 1:6).

13. **㉠** ‘여호와와 의 도(道)’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9 절)

- ㉠** (1) ‘여호와와 의 도’라는 말은 ‘주의 길들’(the ways of the Lord)이란 뜻으로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참길을 의미한다(참조, 계 15:3).
- (2) 이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래서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롭게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영혼이 소생될 수 있다(시 119:37; 사 26:7).
- (3) 한편 이와 같은 ‘여호와와 의 도’는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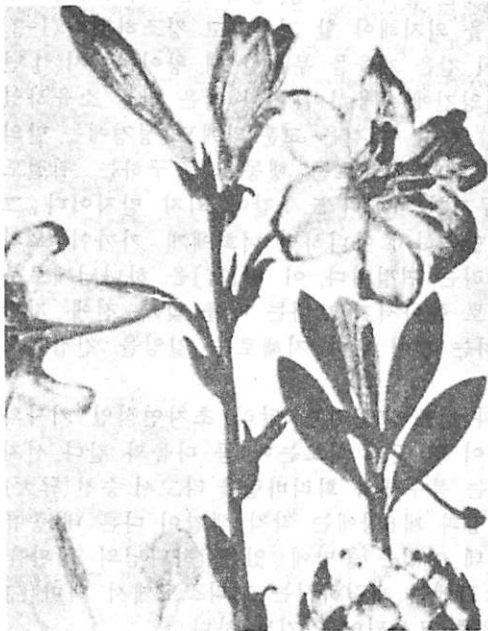
열려졌다(요 3:16).

- (4)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도’ (고전 1:18)라는 말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정직하고 진실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요 14:6).

14. **Q** 의인과 죄인은 여호와와 의 도에 대해 어떻게 행할 것인가? (9절)

- A** (1) 여호와와 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 도 안에서 행하지만 죄인은 그 도에 거처 넘어질 것이다.
- (2) 여기에서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철>은 ‘공명正大한’, ‘똑바른’, ‘거짓과 교활이 없는’이란 뜻을 지녔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처럼 그의 길도 올바르다는 뜻이다.
- (3) 또한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최선의 길을 발견하며 그가 경고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죄인’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진리를 회피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죄인은 거기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 (5) 이와 같이 의인에게는 생명을 그리고 죄인에게는 사망을 주는 ‘여호와와 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사 28:16; 롬 9:33).

화보자료



백합화(lily). 사진에
서와 같은 백합화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나라 뿐 아니라
팔레스틴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백합화가 자
주 인용되었다(아 5:13;
마 6:28; 눅 12:27). 그런
데 본장에서는 장차 회
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슬을 머금고 활짝 핀
백합화’(5절)에 비유되
고 있다. 이것은 곧 장
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상태가 만개(滿開)한 백
합화같이 풍성하고 아
름다울 것임을 암시한다.

연구자료

말[馬]과 관계된 성경적 교훈과 상징

말은 개나 소에 비해 가축으로서는 비교적 늦게 길들여진 동물이다. 최초로 유라시아(Eurasia)와 북부 아프리카로 퍼져 나갔던 말은 후에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퍼져 나갔다. 근동 지방에서 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때는 B. C. 2000년대 중엽부터인데 애굽에서는 히소스(Hyksos) 왕조 때부터 이미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애굽의 말은 자연히 팔레스틴 및 인근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유출되었으니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 통치 시대부터 말이 전쟁 및 수송, 사냥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수단이 되었다.

말에 대한 최초의 성경적 언급은 창 47:17에 나오는데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말과 소, 나귀를 받고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사(記事)이다. 이후 성경에는 말과 관계된 갖가지 교훈과 비유, 상징, 기사가 나오는데 이중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세 율법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많은 말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신 17:16).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한 철두 철미한 신앙을 지닌 채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왕이 많은 말을 갖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 말을 의지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교훈은 본서에도 나와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말이나 우상, 강대국을 의지하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3절). 그러나 솔로몬은 이 같은 제율을 무시한 채 왕이 된 지 1년도 못 되어 4천 간의 외양간에 수용하여야 할 많은 말을 소유하였다(왕상 4:26; 대하 9:25). 한편 이 같은 교훈 외에도 성경에는 말의 생태(生態)에 빗대어 인간의 지혜로운 행동을 촉구하는 귀절도 나오는데 곧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시 32:9)라는 귀절이다. 이 말(畜)은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서 그분께로 돌아서기 보다는 매를 맞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길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성경에는 이상과 같은 교훈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기사와 관계된 말에 대한 언급이 몇 군데 나오는데 곧 다음과 같다. 선지자 엘리야는 불말이 끄는 불수레와 회리바람을 타고서 승천(昇天)하였다(왕하 2:11). 속 6장과 제 6장에는 각각 색깔이 다른 네 종류의 말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리고 제 19:11에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백마(白馬)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